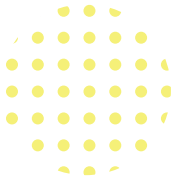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2021-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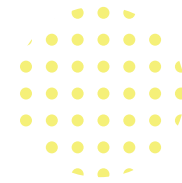
뉴노멀시대를
경험한
또다른 실천
이야기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뉴노멀시대를
경험한
또다른 실천
이야기



Contents

06 발간사

08 추천사

11 1부 새로운 실천 방법 찾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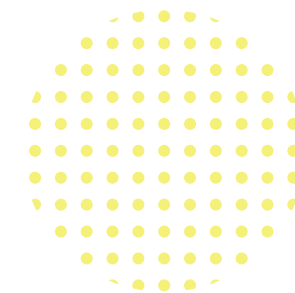
- 온라인 공동체 '클릭온' 시작배경
- 온라인 공동체 '클릭온' 준비과정

35 2부 새로운 실천 방법 실행하기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우쿨렐라 모임 '방구석 음악회'
(조아현 장애인재활상담사)
- 온라인 독서,드로잉 모임 '문학마을'
(최예원 사회복지사)
- 온라인 역사탐방 '꽃보다 유적'
(황지우 사회복지사)

115 3부 새로운 실천 방법 정리하기

- 담당자 별 에피소드
- 참여자 인터뷰
- 사업 발전가능성
- 마지막으로



뉴노멀시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코로나 19는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기존의 삶의 방식을 흔들어놓았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을까? 막연했던 기대와 달리 코로나 19는 점점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이 휴관 상황에 이르기기도 했습니다. 매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여쭙던 이용자들의 온기가 사라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복지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복지관 서비스는 중단되었지만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역할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 긴급서비스는 가정방문서비스로 진행했고, 이용인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재활치료, 학습워크북, 방역용품, 생활용품 키트 등을 제작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하며 안부를 여쭙기도 했습니다. 또, 동영상으로 참여 가능한 요리활동, 체육활동, 온라인 재활상담 등을 제작해 가정 내 참여를 유도했고, 지역의 소상공점에 방역용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복지관이 제공하던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복지 실천 변화 모색"을 내부 교육으로, "우리 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을 워크숍으로 진행하면서 직원모두가 한마음으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을 교육받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뉴노멀 경험의 필요함을 학습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주제인 "뉴노멀 시대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고, 지난 워크숍에서 새로운 서비스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신입직원 3명이 의기투합해서 제안사업을 준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인 분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장애인분야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되, 일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클릭온(Click 온)"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기존 대면 서비스에 익숙하던 직원들이 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상장비 시장조사, 영상 활용 전문교육 이수 등 기본 준비를 마친 후, 주변과의 단절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관악구 장애인 분들이 한분씩 두 분씩 모이면서 "클릭 온 사업"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게 된 비대면 상황의 교류, 기기 사용법 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우쿨렐레, 독서&드로잉, 역사현장탐방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기에 함께 토론하고, 모임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면서 배움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전한 관계가 깊어지면서 작품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몰스파크 사업, 외부 지원사업 등에도 지원하여 올해에도 모임을 지속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뉴노멀시대에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복지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실무자들의 노력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며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세 개 모임의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모습으로 함께 한 방구석음악회, 문학활동, 꽃보다유적 참여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 황지우 사회복지사, 조아현 장애인재활상담사, 최예원 사회복지사와 사업비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황성혜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시작하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식적으로 COVID-19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고, 감염과 방역을 위해 모든 교육기관들은 문을 닫았으며, 각종 모임들이 중단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도 정부와 지자체의 휴관명령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공공의료와 함께 인간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뼈대가 되는 시스템이기에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긴급하게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왜냐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인 장애인들에게 복지관 이용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기에,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단절을 초래하고 고립감을 야기하며, 더 나아가 생존에 위협마저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에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고안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 공동체 '클릭온'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온라인 도구 활용 교육을 받고, 영상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참여자를 선정하고, 세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방구석 음악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악기 연주방법을 교육하고 비대면

음악회를 여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독서활동 모임인 '문학마을'의 참여자들은 캘리그래피와 드로잉을 배워 좋은 구절들을 글씨와 그림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온라인 역사탐방 '꽃보다 유적'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고 싶은 유적지를 방문하고 영상을 찍어 편집하고 동영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감이 향상되고 자기표현력도 늘어났다.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정도도 증가하였다. 참여자들 간에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친밀감이 향상되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COVID-19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난 상황을 맞았을 때 장애인 사회복지에 어떠한 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를 능동적으로 마련해볼 수 있었다.

이 사업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어려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교수

김경미

뉴노멀시대를
경험한
또 다른
실천 이야기

1부

새로운 실천 방법
찾아가기

- 온라인 공동체 '클릭온' 시작배경
- 온라인 공동체 '클릭온' 준비과정

'클릭온' 'Click 온(온)', 시작배경



▲ 코로나19 대응 전 직원 워크숍 진행사진, 2020.07.13.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시작된 2020년, 우리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을 인정해야 했고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온라인을 주 매개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온라인 공동체 '클릭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성인장애인의 사회적 단절 및 정서적 고립감 심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코로나19가 요구하는 비대면 거리 두기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중단되고 긴급 돌봄만 진행되었습니다.

안부전화를 통한 이용인 상담 시 외부 활동 제한과 단절로 인한 우울감, 정서적 소외감, 무기력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이용인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소외감은 더 심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심심해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라디오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

- 안부전화시 성인 재가 장애인 전○○님 상담 내용 일부 발췌 -

"사실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외출을 못해서 답답하지는 않지만 괜히 마음이 우울해요."

- 안부전화시 성인 재가 장애인 김○○님 상담 내용 일부 발췌 -

이용인들에게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지 않고, 온라인을 매개로 개인 별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방식으로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성인장애인의 정서적 고립감이 감소되겠지요?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 한계에 따른 서비스 및 정보의 부재

최근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람 간 관계 맺기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는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를 더 중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온라인에서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음으로 (이향수,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20) 대인관계가 오프라인 이외에는 전무하며,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할 시 참여율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상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이용인 쌍방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영상 접속, Zoom 화상 회의 참여, 영상 촬영 및 송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쌍방향 의사소통 방법의 새로운 실마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텍스트, 이미지, 글과 같은 정적인 콘텐츠에서 영상과 같은 동적인 콘텐츠로 급속하게 변화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등의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인기인 것만 보아도 영상 소비의 증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학교, 기업 등 많은 곳에서 영상을 이용한 소통을 시작했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소외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중심의 개별 및 집단 서비스의 진행이 어려워 비대면 중심으로 물품 지원, SNS 소통, 온라인 상담, 동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기존의 대면 서비스 제공 방식에 익숙했던 직원들이 영상 촬영, 편집, 미디어 활용 등의 역량에 한계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기본적인 온라인 도구는 활용할 줄 알아야겠다.'는 직원들의 배움의 욕구가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이용인의 삶터인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원들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과 '복지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관계망을 연결하는 대안 사회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현

복지관이 휴관하며 처음 시도했던 것은 활동 키트를 배포한 후, 담당자가 활동 방법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일방적 방식(One-Way)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배포는 사람을 마주하는 '대면'의 느낌으로 상호작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방적 방식보다는 동시 접속을 통한 쌍방향 방식으로 고립감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복지관 이용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만남이 이뤄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이 가능해 다수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로운 집콕 대신 '온라인 연결'로 소통"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 대신 각자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실제 지난 1분기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고, 비디오 게임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고립감 호소가 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연결'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 TechM 기사 : '언택트 시대? 이제 온택트 시대다...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이 뜬다. 본문 중¹⁾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장애인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음악, 문학, 역사탐방'이라는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상호작용, 교감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가능하면 온라인 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코로나 방역을 지키며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며 개인의 관계망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지역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장애인의 삶

2020년 2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정(情)이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 모두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 복지관의 미션처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사람 간 소통을 통해 대인관계 속 따듯함(溫)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호흡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션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1) 2020.07.02.기사,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3106>

장애가족이 시민으로서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체적으로
일상의 삶을 누림

지역과 공생하는
장애친화마을 이름

연계협력으로
변화를 이룸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미션, 비전

'클릭온' 'Click 온(온)', 준비과정



▲ 전 직원 기초교육 진행사진

“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서비스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용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키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지만, '다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

온라인 공동체 '클릭온' 준비과정



▲ 준비과정 도표

디지털 관계망을 연결하는 대안 사회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현

1. 전 직원 기초교육

- 교육목표 : 1.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현장과 실천 가치 이해
2. 기본적인 온라인 소통 도구를 체험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지식 마련

1회기 2020. 8. 31(월) 17:00~19:00

강의 주제	강사	진행 방식	참여인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디어 활용의 중요성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	Zoom 활용한 비대면 전달식 강의	26명



▲ 1회기 교육 진행사진



▲ 1회기 교육 진행사진

교육소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부전화, 온라인 개별 상담, 동영상 제작 배포(신체장애인 운동방법 등), 개인 맞춤형 활동 재료와 방법 꾸러미 배달(놀이 활동, 정서지원, 자가 훈련 등)과 같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① 영상 제작 전문 직원 양성

"직원들 전체의 역량강화의 질을 높이려면 전문 직원(영상 제작 및 플랫폼 제작 등의 업무)을 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지원팀 사회복지사 전○혜)

② 웹캠, 마이크 등 미디어 기기 마련 및 활용능력 확대

"영상을 잘 찍고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명료하게 녹음될 수 있는 마이크나,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웹캠 구비가 필요합니다.
(직업지원팀 사회복지사 신○영)

③ 비대면 서비스 제공 사례 중심 교육 필요

"사회복지 분야 또는 타 복지관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실무에 적용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연계팀 사회복지사 김○석)

2회기 2020. 9. 23(수) 17:00~19:00

강의 주제	강사	진행 방식	참여인원
기본적인 온라인 소통 도구를 체험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지식 마련	휴먼임팩트 협동조합 신용우 이사, 천우석 팀장	2인 1조로 노트북 활용한 실습 형식	20명



▲ 2회기 교육 진행사진



▲ 2회기 교육 진행사진

교육내용

온라인 소통 도구 중 Zoom, Discord, Youtube, Obs에 대한 안내 및 장단점 소개,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상 회의 참여자의 참여 과정이 비교적 간편함,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설치 후 별도 가입 없이 접속 가능함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서 참여자 간 별도로 소통 가능함 단체 음소거, 화면 녹화, 크로마키 등 다양한 기능 활용한 진행이 가능함 많은 인원이 동시 접속 가능함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버전에서는 한 타임에 최대 40분까지만 가능함 보안에 다소 취약한 프로그램임 본사가 외국에 있어서 고객센터와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움
Disc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함 한 번 만든 채팅방은 나가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아 정기 프로그램 활용 시 좋음 목적에 맞는 다양한 '채널' 이 개설 가능하며 서버의 운영자는 참여자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음. 채팅방에서는 이모티콘, GIF 등을 보낼 수 있으며 파일도 첨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기능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가입한 사용자의 경우 헤맬 수 있음 Zoom보다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연령대가 높은 참여자보다 낮은 참여자들에게 적합함

2)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팬데믹, 장애인복지관 대응 매뉴얼, 2021

교육소감

습득한 온라인 소통 도구를 활용하여 복지관 및 각 담당자 별로 사업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① 전체 사업 도입 방향

"고정적인 인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Zoom보다 Discord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싶네요. Obs를 Discord와 함께 접목해서 사용한다면 재미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지원팀 생활체육교사 김○연)

② 개별 사업 도입 방향

"제 사업인 작지만 큰 걸음 연말 활동 공유회를 Zoom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들을 파악하여 어떤 기능을 활용해 행사를 실시할지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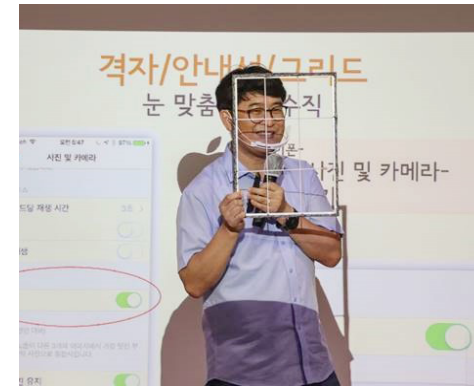
(지역연계팀 사회복지사 이○혜)

"제가 담당하는 찾아가는 생신잔치를 Zoom이나 Discord를 활용하여 실시해보고 싶어요. 이용인들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자동 입력 자막 등 시스템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례옹호팀 사회복지사 황○우)

3·4회기 2020. 9. 14(월), 2020. 9. 24(목) 17:00~19:00

강의 주제	강사	진행 방식	참여인원
사회복지 실무자를 영상 크리에이터로 만들기 위한 영상 심화교육	복지영상 이성중 대표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크 앱 활용한 참여형 실습	24명, 28명



▲ 3회기 교육 진행사진



▲ 4회기 교육 진행사진

교육내용

촬영법 중 3초 동영상 촬영법(3초 단위로 영상 끊기), 321사진촬영법(3인칭, 2인칭, 1인칭, 사물과의 대화를 기록), 시선의 움직임을 담는 동영상 촬영법(둘러보기, 올려보기, 내려보기)에 대한 교육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키네마스터 활용해 영상 기획 및 제작하는 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교육소감

핸드폰을 활용해 더욱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야 할지 다양한 아이디어(가정 내 재활운동, 함께 만들어 먹는 밀키트 제작법)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① 개별 사업 도입 방향

"주민만나기 캠페인에서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뷰 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지 못했던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실무에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하여 만족도가 큼니다."

(지역연계팀 사회복지사 이○혜)

"PATH 현장을 영상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 활동 공유회에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팀 사회복지사 고○정)

"본 교육을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일상과 업무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 이용인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례옹호팀 사회복지사 유○준)

전 직원 대상 기초교육 참여 독려 방법

① 욕구에 따른 저녁 간식 제공

6시 이후까지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저녁 간식을 제공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간식 구입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고, 흔쾌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에 드시고 싶은 메뉴를 여쭙고 이에 따라 샌드위치, 햄버거, 김밥, 토스트 등을 여러 메뉴를 새롭게 제공했습니다. 간식 덕분에 퇴근 후 시간을 내어 학습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② 매 교육 설문조사 반영한 능동적인 학습 참여 경험 제공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주관식 항목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론식 교육보다도 실무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도구(Zoom, Discord) 기술과 영상 촬영, 편집에 대한 실습 욕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은 복지영상 이성종 대표의 영상 기초교육(총 1회기 수업)이었는데 1회기 더 추가하여 심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 반영으로 교육 만족도 높아졌고 다양한 영역의 전 직원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도 이끌었습니다.

2. 실무촉진TFT 심화교육

프리미어 프로 교육 2020. 10. 14 ~ 2020. 11. 10, 14:00~16:00
 (총 10회, 20시간)

교육목표

소통의 창구로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한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기술 습득

강의 주제	강사	진행 방식	참여인원
프리미어프로 편집 기초 교육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학원	컴퓨터 학원에서 현장 수강	3명 (실무촉진 TFT)

교육내용

1주 차에는 기본 화면 구성 및 기능 이해하기, 2주 차에는 특수효과 및 오디오 편집법 익히기, 3주 차에는 영상효과 및 색상 보정법 넣기, 4주 차에는 프리셋(3D), 플러그인 미리 만들어 놓은 보정의 설정값을 다운받아 적용하기를 학습했습니다.

교육소감

코로나19 상황에서 소통 도구인 영상 편집 방법 중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 기초부터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어 클릭온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① 황지우 사회복지사 : "질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 생각하다 영상 편집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 2회씩 총 10회 과정으로 기본적인 컷 자르기, 자막 및 음악 넣기, 효과 적용하기 등 실무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 꽃보다 유적 영상 편집, 2021년 사업 설명회 영상 제작 등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역량이 키워졌던 교육이었습니다."

3) 미리 만들어 놓은 보정의 설정값

② 최예원 사회복지사 : "먼저 영상 편집교육은 받아보고 싶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클릭온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교육을 배우면서 어려웠지만 " 이것이 이렇게 편집하면 되는 거구나.'라며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프리미어 프로'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던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③ 조아현 장애인재활상담사 : "직업 특성상 영상편집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클릭온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과제였습니다. 사실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분야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이용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미디어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갖춘 실무자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시 참고 사이트 추천

퀄리티 있는 사진, 동영상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무료)

- ① 프리픽(Freepik)
- ② 픽사베이(Pixabay)
- ③ 믹스킷트(mixkit) ★추천 : 퀄리티 높은 사진이 많음★

프리셋, 플러그인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유료&무료)

- ① 엔바토마켓(Envato Market)-영문 사이트
- ② 모션엘리먼트츠(Motion Elements)- 한글 사이트 ★추천★
- ③ 비디오코파일럿(Video Copilot)-영문 사이트

사운드 관련 다운 웹사이트(유료&무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GM(무료) ① 프리사운드(Freesou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우 녹음(유료) ① 클로바더빙(Clova Dubbing) ② 보이스마루(Voice Maru) |
|---|--|

영상 장비 사용 심화교육 2020. 11. 12(목) 10:00~12:00

교육목표

- 사회복지 현장에서 영상 장비를 활용한 촬영 및 편집법 습득

강의 주제	강사	진행 방식	참여인원
기본적인 영상 기획, 촬영 및 스튜디오 구성에 대한 이해	휴먼임팩트 협동조합 신용우 이사, 천우석 팀장	영상 장비를 활용한 실습 형식	3명 (실무축진 TFT)

교육내용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카메라 1~2대, 강사가 스크립트를 읽을 수 있는 PC 1대, 마이크 1세트, 조명 1세트, 포인터, 스크린, 빔프로젝터가 필요하고 이를 연결해서 작동하는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또한, 편집을 위해선 프리미어 프로(선 촬영, 후 편집/고퀄리티 영상 제작 가능), OBS(촬영 및 편집 동시/적당한 퀄리티 영상 제작 가능) 두 가지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육소감

다양한 기관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콘셉트로 촬영할지 고민한 후에 그 방식에 맞게 영상 장비를 세팅하는 게 먼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 장비를 구입한 만큼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① 황지우 사회복지사 : "여러 장비를 알아보고 구매했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니 영상 촬영 및 편집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다뤄본 적이 없는 장비여서 더욱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카메라에 마이크를 연결하는 법, 녹화되는 소리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 강사와 교육 전경을 비추기 위해 두 개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해야 하는 것 등 전문적인 세팅 및 촬영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장비에 대한 친숙함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② 최예원 사회복지사: "교육을 듣기 전까지 내가 정말 이 장비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이 익숙하지 않았고 어렵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영상장비들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우리가 몰랐었던 다양한 기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영상을 제작해왔기 때문에 교육 중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가장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높은 질의 영상 촬영, 송출, 편집을 해보고 싶습니다."

③ 조아현 장애인재활상담사: "유튜브 및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장비 사용법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영상 장비를 다룰수록 궁금한 점이 생겼고, 영상 기계 기능은 생각 이상으로 다양했습니다. 휴먼임팩트 영상 장비 활용 심화교육을 통해 몰랐던 세심한 조작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장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저것 만져보며 기계를 습득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아서 교육 이후 영상 기계를 자주 다루도록 노력했고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3. 영상 스튜디오 구축

좀 더 깨끗한 음질과 화질을 제공하기 위해 영상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영상 스튜디오 구축을 위해 장비 시장조사 및 장비 기계조작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온택트 시대에 맞게 다양한 목적과 활동을 진행하며 영상 스튜디오를 구축하였습니다.

영상기기 구입 및 스튜디오 구축



카메라(캠코더)

제품명: 소니 FDR-AVX4, 256G
 가격: 160만 원대
 - 흔들림 방지 및 주변 노이즈 제거 기능 탑재
 -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에 적합



카메라

제품명: 캐논 G7X MARK3, 64G
 가격: 80만 원대
 - 폴터치 틸트형 모니터
 - 가벼운 무게의 렌즈
 - 외부활동 브이로그용



무선마이크)

제품명 : 소니 UWP-D21
 가 격 : 60만 원~70만 원 대
 - AA 배터리 사용
 - 높은 가격대이나 음질 최상의 제품
 - 자동으로 주파수 측정



삼각대

제품명 : 소니 VCT-VPR1
 - 카메라 연결하여 리모컨으로 작동
 - 안정적 촬영 가능



캡처보드

제품명 : 엘가토 발송용
 가 격 : 20만 원~25만 원 대
 - 4K 고해상도 녹화품질
 - USB로 손쉽게 PC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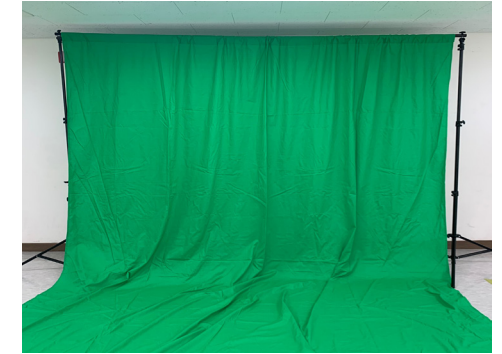
조명 키트 형광등 라이트 조명+스탠드

제품명 : 캐논 G7X MARK3, 64G
 가 격 : 10만 원대
 - 형광등 2개 사용 시 은은한 조명 효과 /
 4개 사용 시 환한 조명 효과
 - 실내 촬영 시 필수



샌디스크

제품명 : 샌디스크 울트라 마이크로
 - 저장 공간 확보
 - 카메라 당 64G 1개씩 추가 구입하는 것을 추천



크로마키

제품명 : 크로마키
 가 격 : 20만 원~30만 원 대
 - 비교적 큰 사이즈 성인 4인~5인 가능
 - 독립적 설치 어려움

영상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관기관과 영상장비 사업체에 문의하여 저희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고, 위와 같은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영상 스튜디오 사진

온라인 스튜디오 활용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① 질 높은 온라인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핸드폰으로 찍어 편집한 영상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기계 조작에 두려움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영상을 보니 화질과 음질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영상 스튜디오 활용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역연계팀 사회복지사 최○원)

"코로나19 이후로 복지관에 다양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영상 촬영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상에서 중요한 건 음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생해보면 음질이 좋아 담당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직업지원팀 장애인재활상담사 조○현)

② 온택트 시대에 맞는 전문성 향상

"비대면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온택트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스튜디오가 구축되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좋습니다."

(지역연계팀 사회복지사 이○혜)

온라인 스튜디오 활용에 대한 이용인들의 의견

"사실 복지관에 직접 와서 담당 선생님과 인사 나누며 교육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고, 저도 밖에 나가기 무섭기도 해서 Zoom으로 교육을 받는데 생각보다 화질도 좋아서 교육받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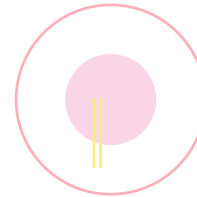
"집에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업설명회를 보면서 담당 선생님 얼굴도 보게 되고 정말 좋았어요. 다양한 영상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꽃보다 유적 영상을 보면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영상 음질이 좋아서 자막 없이도 이해하기 참 쉬웠습니다."

뉴노멀시대를
경험한
또 다른
실천 이야기

2부

새로운 실천 방법
실행하기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우쿨렐라 모임 '방구석 음악회'
(조아현 장애인재활상담사)
- 온라인 독서,드로잉 모임 '문학마을'
(최예원 사회복지사)
- 온라인 역사탐방 '꽃보다 유적'
(황지우 사회복지사)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동주민센터 홍보물 부착 사진



클릭온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했습니다.
 열심히 홍보한 덕분에 참여자 모두 잘 모집, 선정되었습니다.

클릭온을 어떻게 홍보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참여자들을 선정했는지 같이 보실래요?



1. 핵심 참여자 홍보 및 선정

※ 핵심 참여자는 클릭온 사업에 참여한 성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클릭온 실무촉진 TFT는 관악구 내 21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
 용인 중, 관악구에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에는 사전 연락 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안내와 동시에 포스터를 부착하였고, 복지관 이용인
 에게는 문자와 전화로 연락하고 복지관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실무촉진 TFT는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온라인 역량 강화, 온라인 소통이
 필요한 성인 장애인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먼저 관악구에 있는 21개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많은 사람들에게
 클릭온 사업을 알렸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도 사업 안내 현수막을 볼
 수 있도록 복지관 건물 외벽에 큰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복지관 건물 현수막 사진

참여자 홍보는 이용인들에게 충분히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승강기 내부에 부착하였고, 사업 홍보 단체 문자 내용에 클릭온이 신규 사업임을 안내했습니다. 신규 사업에 궁금증을 가지고 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주는 이용인들이 많았고 계획보다 2배 많은 신청자가 모집되었습니다. 짹짹!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던 것은 기뻐했으나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계된 이용인은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 홍보에 대한 연계, 협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자, 그리고 복지관이 끊임없이 궁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홍보와 모집이 끝난 뒤, 핵심 참여자 선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클릭온의 핵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았습니다.

구분	성인 장애인
공통	관악구에 거주하는 성인장애인 (총 13명)
1위	이동에 제한이 있으며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성인장애인
2위	미디어 매체 및 디지털 기기 활용에 관심이 많은 성인장애인
3위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성인장애인

방구석 음악회는 10명이 신청하였고, 문학마을은 9명, 꽃보다 유적은 무려 1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실무축진 TFT가 신청자와 1:1 비대면 상담하여 신청 동기와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의 답변을 선정 기준표에 꼼꼼히 작성했고, 실무축진 TFT의 선정 회의를 통해 총 13명의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구석 음악회 5명, 문학마을 5명, 그리고 꽃보다 유적은 3명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 주변 참여자 홍보 및 선정

※ 주변 참여자는 클릭온 사업에 참여한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의미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주변 참여자로 작성하지 않고 강사, 자원봉사자로 작성합니다.

[강사]

11월 초, 방구석 음악회의 음악 강사, 그리고 문학마을의 캘리, 드로잉 강사를 모집하기 위해 사전에 페이스북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많고 많은 정보 중,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의 회원인 강사들이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음악과 캘리그래피, 드로잉 강사님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속전속결로 한국문화예술가협회에 연락하여 클릭온 사업에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음악과 캘리그래피와 드로잉 강사도 흔쾌히 함께하기로 했고 즉시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강사들과 국장, 그리고 실무축진 TFT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방구석 음악회의 강사와 프로그램 일정, 그리고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비밀이 튀지 않는 안전한 악기, 악기 구매 비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문학마을의 강사와도 교육 가능한 일정을 공유했고, 책의 종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물론 캘리그래피, 드로잉에 필요한 재료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방구석 음악회의 12회기 중 6회기는 대면, 6회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문학마을은 월 1회의 대면 교육 외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11.25 강사와의 사전 회의

사실 '방구석 음악회와 문학마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머릿속에 그려졌으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풀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요소들이 결정되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강사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을 표현해 주어 실무촉진 TFT도 덩달아 프로그램의 시작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꽃보다 유적에서 장애인과 1:1로 매칭해서 함께 활동할 역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했습니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있는 서울대학교, 송실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역사학과 학생들이 주 대상층이었습니다. 홍보 기간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3주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한 것이 모집 과정에서 가장 노력한 부분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노출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스펙업, 독취사),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애브리타임 그리고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VMS)를 활용했고, 각 사이트에 홍보 포스터와 모집 글을 게시했습니다. 온라인을 주 매개로 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 또한 여러 종류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온라인 홍보 이외에도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역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대면 홍보가 불가능했고 '새로운 온라인 홍보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추가 홍보를 고민하던 중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을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홍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사학과 단체 채팅방, 서울대학교는 자원봉사 게시판에 홍보해 역사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던 대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했습니다. 3주간의 사업 홍보, 모집이 끝났고 목표했던 3명의 대학생이 꽃보다 유적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과 함께 탐방을 한 적은 많지만 장애인과 함께 하는 탐방은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저에게 경험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일상 속에서도 쉽게 독일의 유적지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한 편, 한국에서는 일상을 살아가기에 바빠 우리나라의 유적지들을 생각하고 둘러볼 여유도 없이 살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김*우 봉사자 신청 메일 내용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과 신청 인원이 동일하여 꽃보다 유적 담당자가 1:1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장애·비장애 통합 활동의 이해, 그리고 3개월간의 활동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지역 대학교 (서울대, 중앙대, 송실대) 역사 전공 대학생
성인장애인과과의 통합 활동을 이해하고 관심과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

▲ 자원봉사자 선정기준

신청자들은 활동에 대한 기대와 열정, 그리고 이해도가 높았고 3명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도 포기, 탈락 없이 꽃보다 유적 3회기를 함께 빛내주었습니다.

우쿨렐라 연주 모임 '방구석 음악회'



▲ 방구석 음악회 단체사진

“

다들 좋아하는 악기가 하나쯤 있어도 행복의 기준이 생긴다고 합니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인분들에게도 집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택트 활동으로 정한 프로그램은 바로, 방구석 음악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지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

방구석 음악회 온택트 활동

- ① 활동기간 : 2020년 11월~2021년 3월 (총 4개월)
- ② 참여대상 : 관악구에 거주하며, 음악 활동에 관심 있는 성인 장애인 5명
- ③ 선발방법
 - 총 11명 신청자 중, 5명 선발
 - 신청자 대상으로 유선 상담 진행 후 클릭온 TFT의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선발
- ④ 진행장소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및 참여자 자택
- ⑤ 진행일시 : 매주 월요일 13:00~14:00
- ⑥ 진행일정

1~4회기 (20.12.21~21.01.11)	- 강사님과 참여자들이 논의하여 악기 선정
5~8회기 (21.01.18~21.02.08)	- 오프라인과 온라인(Zoom) 교육 병행하며 악기 연주
9~12회기 (21.02.15~21.03.08)	- 랜선 음악회 준비 및 진행

⑦ 진행방법

온라인 진행	-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활동 진행 (총 6회) - 네이버 밴드(온라인 플랫폼)를 활용한 작품 나눔 활동 (상시)
오프라인 진행	- 복지관에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안전하게 대면 진행 (총 6회)

⑧ 담당자 소개

- 담 당 자 : 조아현 장애인재활상담사
- 담당 업무 :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고용사업
- 경 력 : 1년 3개월

프로그램 상세 소개

1. 프로그램명 : 온라인 공동체 클릭은 '방구석 음악회'

2. 프로그램 기획 이유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 이전 하모니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많은 이용인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하모니카 악기의 특성상 마스크를 벗어야 했으며, 비말 차단이 어려워 본 프로그램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단을 아쉬워하는 이용인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졌으며,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속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안부 유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인들의 욕구를 재점검하였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용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함께 악기를 배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랜선 교육을 통해 악기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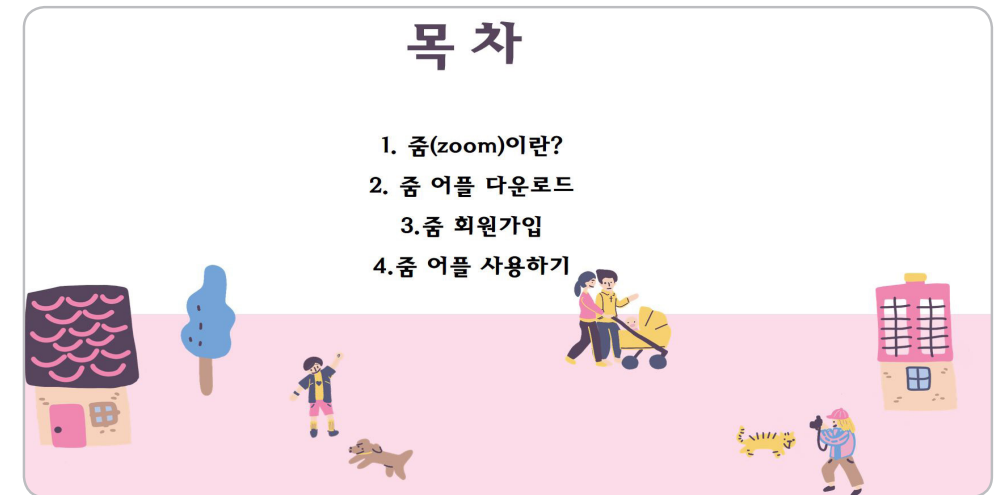
이용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제작한 프로그램 '방구석 음악회' 12회기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3. 프로그램 활동 내용

사전준비 어색했던 우리의 첫 모임

2020년 11월 겨울을 맞이하던 어느 날. 방구석 음악회 참여자들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배운다는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인지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라포 형성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 5명을 비롯한 우크렐라 강사 그리고 방구석 음악회 담당자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온라인을 활용한 Zoom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Zoom을 처음 해보신 분은 5명 중 3명이었습니다. Zoom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생소하신 참여자들을 위해 앱 설치부터 강의실 입장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 줌(Zoom)설치 및 사용 교육자료

1. 줌(ZOOM) 화상강의 이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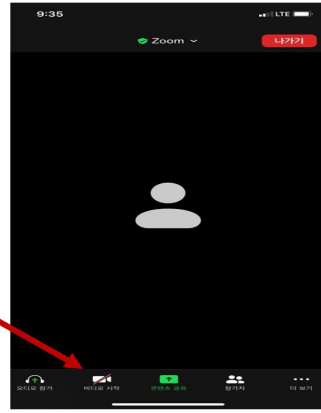
- 앱을 다운받기 위해 '구글플레이'를 눌러, '줌'을 검색합니다.



▲ 줌(Zoom) 화상강의 이용법 교육자료

4. 회의 진행자가 승인을 하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비디오 시작을 눌러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송가원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줌(Zoom) 화상강의 이용법 교육자료

Zoom 교육 이후 참여자들끼리 논의하여 악기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방구석 음악회' 프로그램은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자 배우고 싶었던 악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만, 악기의 기초 연주법을 익히기 위해 대면 교육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배울 수 있는 악기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다수결로 '우쿨렐라' 악기를 선정하였습니다.

tips

- PPT를 활용한 Zoom 교육 자료를 만들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말보다는 시각화 자료를 첨부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되기 쉽습니다.
- 사전에 쉽게 배울 수 있는 비밀 악기 4~5가지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처음 (1~4회기) 우쿨렐라 악기 매력에 빠져볼까요?

걱정과 달리 참여자들은 빠르게 적응하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교육 시작 2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악기 튜닝을 하였고, 지난주에 배웠던 코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참여자들 모두 우쿨렐라 악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교육 초반에는 악기의 기본 코드 연주법을 배워야 했기에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코드를 잡고 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쿨렐라 강사는 좀 더 쉽게 코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우쿨렐라 악기 4개의 줄과 손가락에 숫자 번호를 매겨 1학년3반(1번째 줄에 3번째 손가락 위치)으로 불러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였습니다.



우쿨렐라 연주 연습 중인 모습



▲ 우쿨렐라 연주 연습 중인 모습2

중간 (5~8회기)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연주해요.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진 참여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심심하고 무료한 일상에 생기가 샘솟았습니다. 강사와의 소통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로 프로그램 분위기는 늘 맑음이었습니다.



▲ 온라인 우쿨렐라 교육 사진



▲ 온라인 우쿨렐라 연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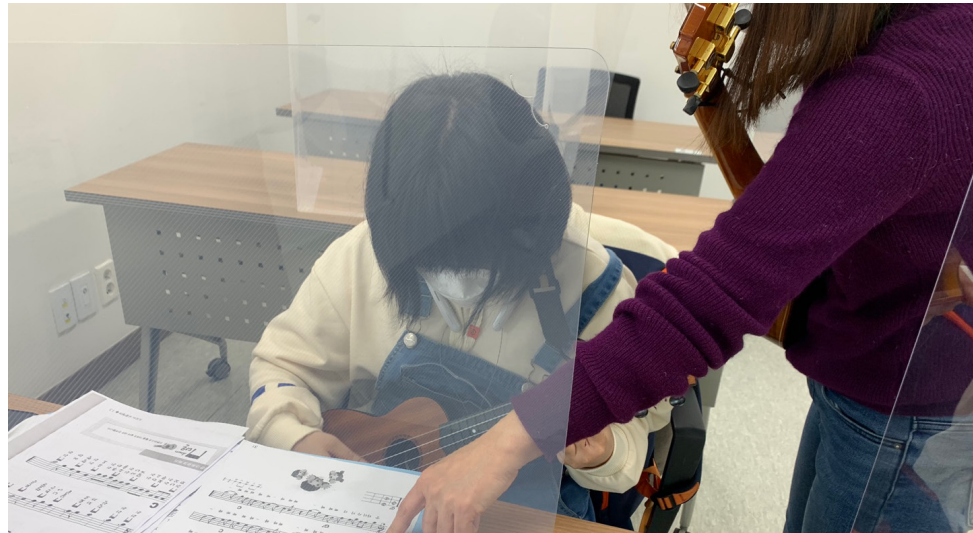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고, 어려운 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Zoom 회의에 참석하다보니 오디오가 겹쳐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잡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명씩 연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또, 인터넷 연결에 문제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시작 전 미리 와이파이 수신을 점검했습니다.

tips

교육이 끝난 후, 진행했던 Zoom 교육의 인터넷 연결 상태 및 음향은 어떠한지 참여자들에게 질문하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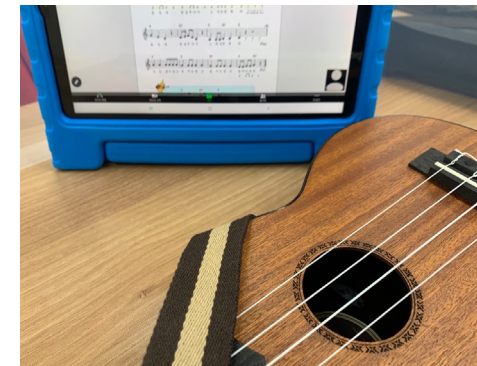
끝 (9~12회기) 소중한 방구석 음악회 시간을 추억하며

프로그램 마무리를 짓기 위해 비대면 음악 공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사와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가장 자신 있는 1곡을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시 1:1 지도를 통해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며 연주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악회 준비를 하는 동안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는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 1:1 우쿨렐라 교육 사진

비대면 음악 공유회 진행에 있어 많은 참여자들은 긴장하며 떨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연습하고 연습하였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다들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연주할 수 있다는 말로 참여자들을 안도시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강사의 지도 하에 개인별 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수 없이 곡을 완주하신 참여자도 있었고, 너무 떨려 다시 연주를 시작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한 모든 참여자가 끝까지 연주를 마쳤습니다. 비대면 음악 공유회를 마치고 서로를 향한 칭찬과 더불어 그동안 경험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말이 오고가며 아쉬운 마음은 더 커져갔습니다. 마지막 기념촬영을 한 뒤, 앞으로도 우쿨렐라 악기를 놓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며 좋은 취미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였습니다.



▲ 온라인 우쿨렐라 교육 사진



▲ 우쿨렐라 연주 중인 참여자 모습

방구석 음악회 참여자 FGI를 통한 질적평가 결과

방구석 음악회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2회기 프로그램을 함께해 준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방구석 음악회에 열심히 임해주신 모든 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질문지는 클릭온 실무촉진 TFT가 사전에 논의하여 정리하였고,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류	문항 내용
시작 멘트	- 인사 및 자기소개, 인터뷰 진행에 대한 감사 표현 - 인터뷰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한 설명 진행
도입 질문	- 코로나로 인해 어떠한 심리적 단절, 고립감을 느끼셨나요? -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셨나요?
주요 질문	- 방구석 음악회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반면에 아쉽거나 어려웠던 점은 있나요?
마무리 질문	- 추가적으로 강사님이나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또 배우고 싶은 것

1. 방구석 음악회 참여 동기

무료한 일상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함

의외였던 답변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을 크게 모르겠다."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많은 장애인분들이 정서적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생각하였습니다. 방구석 음악회 참여자들은 무료한 일상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많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2020년 11월 겨울을 맞이하던 어느 날, 방구석 음악회 참여자들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배운다는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인지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일하러 나가는 거 이외로는 외출을 못하게 하셨어요. 하모니카 교실 때문에 복지관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다 어렵게 되었어요. 속상한 마음이 커요."

(참여자 안○현님)

"저는 사실 원래도 잘 안 나가고 친구도 없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집에만 있어서 그냥 매일 심심해요."

(참여자 문○정님)

"저는 집에서도 일하고 있어서 밖에 잘 안 나가요. 많이 심심해요. 가끔씩 엄마랑 산책하는데 복지관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못하고 많이 속상했어요."

(참여자 김○정님)

2. 방구석 음악회에서 좋았던 점

칭찬을 통해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줌

늘 친절한 강사의 '아낌없는 칭찬이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인 연주가 끝날 때마다 들려오는 강사님의 칭찬은 없었던 자신감도 생기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강사님께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고민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사님께서 매일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어요. 강사님은 제 연주에 늘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어요." (참여자 문○정님)

"개인별 연주를 시작할 때마다 긴장이 되었어요. 떨리는 손을 보시더니 강사님이 손을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셨어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참여자 김○정님)

집에서 의미 없이 보내던 시간이 참여자분들에게 소중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이 되고 많은 참여자분들이 우울감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깐 정말 심심했어요. 매일 보는 텔레비전, 유튜브... 다른 걸 배우고 싶었는데 복지관에서 악기를 집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길래 신청했어요. 신청하길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니깐 정말 즐겁고, 좋네요."

(참여자 김○정님)

"저는 사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이랑 후랑 달라진 걸 잘 몰라요.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도 없고 프로그램도 한 적이 없어서요. 옛날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로 배우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참여자 안○만님)

참여자 중심의 의견 수용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노력을 아셨는지, 참여자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악기 선정에 있어 참여자들끼리 서로 여러 의견을 나누었어요. 아무래도 악기를 배우는 데 있어 매일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종종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진행해야 했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악기 4가지를 찾아보고 서로 만족해하는 악기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김○정님)

"비대면 영상 공유회를 준비할 때 강사님이 정해주신 곡이 아니라, 제가 자신 있고 하고 싶은 곡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곡을 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는데, 제가 고른 곡이라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참여자 전○모님)

3. 방구석 음악회에서 아쉬웠던 점

Zoom 교육의 음질 문제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음악 교육은 잡음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들 대다수가 음질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보다 오프라인 수업을 더 선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가 깔끔했는데 어떤 날은 음질이 좋지 않았어요. 온라인의 교육의 장점도 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어요."

(참여자 안○만님)

"강사님이 코드 헛갈릴 때 손가락이랑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온라인은 우쿨렐라 악기가 잘 안 보여서 코드 잡기가 어려웠어요."

(참여자 전○모님)

4. 방구석 음악회를 통해 변화한 점

방구석 음악회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낌

배움의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참여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회, 2회 회차가 지날수록 강사님과 호흡을 맞추며 점차 악기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이 즐거운 마음가짐이 생기니 악기를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우쿨렐라 악기 코드를 배우면 배울수록 악기에 대한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손가락이 좀만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하하. 욕심이 생기면서 더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 싶었어요."

(참여자 김○정님)

"수업 시작 전에 좀 일찍 와서 지난주에 배웠던 곡을 연습했어요. 우쿨렐라 악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었어요. 아마 강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인 것 같아요."

(참여자 문○정님)

"강사님 오시기 전에 미리 참여자들끼리 악기 튜닝도 하고 개인 연주할 때 서로를 응원해 주면서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전○모님)

자신감 향상

참여자들 모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공을 느꼈으며,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초반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 마지막에는 모두들 다른 악기도 배워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무언가 배우는 게 많이 느려서 사실 신청을 할지 말지 너무 고민되었어요. 악기는 옛날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우쿨렐라 악기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다른 것도 배우고 싶었어요."

(참여자 문○정님)

"우쿨렐라로 노래 한 곡을 연주를 하니 제가 진짜 악기를 배웠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신기해요."

(참여자 전○모님)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비대면 음악 공유회를 시청하며 12회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강사님 너무너무 좋고, 나중에 또 만나고 싶어요. 저는 운동이나 악기를 또 배우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깐 살이 찌는 것 같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는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참여자 김○정님)

"저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악기 배우는 게 어렵고 걱정되었는데 강사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제가 잘 못하면 저 기다려주시고 집에서 연습하라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문○정님)

"온라인으로 교육하실 때 매번 잘 들리는지 어려운 거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늘 감사했습니다. 담당자님도 좋은 환경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자 안○만님)

"저는 우쿨렐라 악기를 좀 더 배워서 더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자 전○모님)

6. FGI를 통한 담당자 의견

참여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는 담당자로서 방구석 음악회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FGI를 통해 참여자들이 방구석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감정을 함께 이겨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또한 참여자들과 강사의 열정과 서로를 위한 격려의 말들로 코로나19 상황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도전하고 경험한 것 같습니다. 방구석 음악회를 통해 참여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담당자도 느꼈으며, 참여자들이 성장한 것처럼 담당자 또한 성장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7. 사전/사후 척도 변화 비교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높음, 총 120점

구분	김○정	문○정	안○현	전○모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82점	104점	100점	96점	95.5	9.57	-1.826	.068
사후	51점	72점	75점	73점	67.7	11.23		

참여자 4명 중 4명 모두 감소(평균 27.8점)

생활 만족도 평가지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높음, 총 35점 만점

구분	김○정	문○정	안○현	전○모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14점	13점	10점	96점	12.0	1.82	-1.604	.109
사후	16점	18점	13점	11점	14.5점	3.10		

참여자 4명 중 3명 증가(평균 2.5점), 1명 동일

행복도 평가지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 높음, 총 42점 만점

구분	김○정	문○정	안○현	전○모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27점	24점	26점	26점	25.7	1.25	-.184	.854
사후	30점	25점	21점	25점	25.2	3.68		

참여자 4명 중 2명 증가(평균 2점), 2명 감소(평균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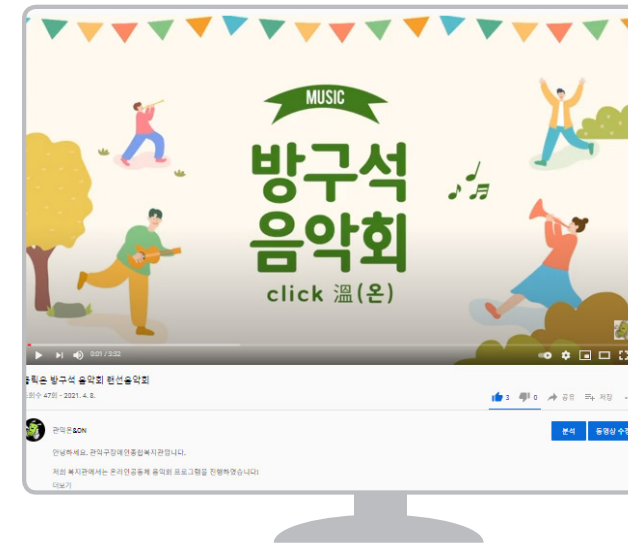
방구석 음악회 사진 및 영상 공유



▲ 비대면 음악 공유회 사진



▲ 비대면 음악 공유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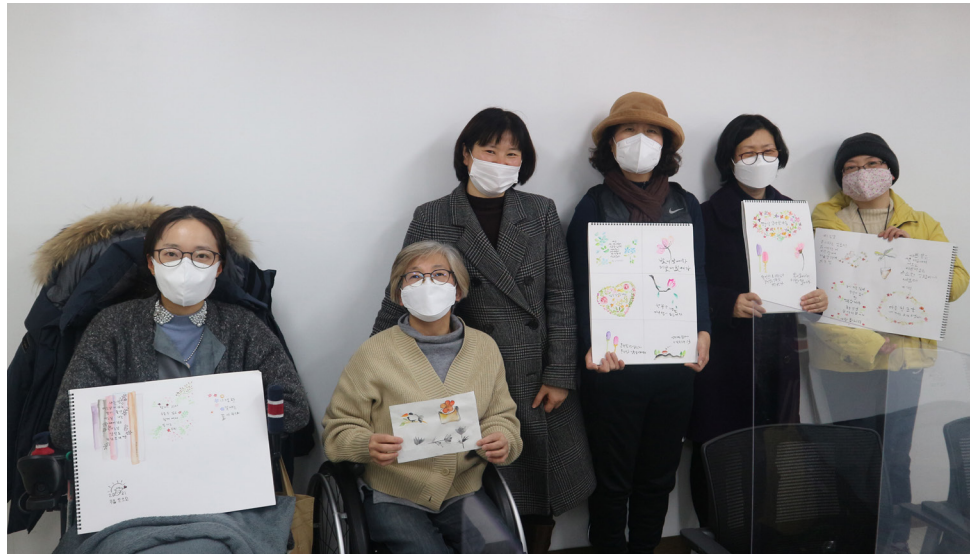


▲ 영상썸네일



▲ QR코드

온라인 독서, 드로잉 모임 '문학마을'



▲ 문학마을 참여자들의 활동 모습

“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쉽고 재미있는
 세 권의 책들을 읽고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마음껏 작성하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마음껏 따라 그리며 소통할 수 있는,
 독서와 캘리그래피, 드로잉을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문학마을을 소개합니다.
 ”

문학마을 온택트 활동

- ① 활동기간 : 2020년 12월 ~ 2021년 3월 (총 12회기)
- ② 참여대상 : 관악구에 거주하며, 독서활동에 관심 있는 성인 장애인 5명
- ③ 선발방법
 - 총 9명 신청자 중, 5명 선발 (12월에 4명 선발 후 1월에 1명 추가 모집)
 - 신청자 대상으로 유선 상담 진행 후 실무촉진 TFT의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선발
- ④ 진행장소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및 참여자 자택
- ⑤ 진행일시 : 매주 수요일, 13:30~14:30
- ⑥ 진행일정

1~4회기 (20.12.18~21.01.06)	- 강사와 참여자들이 문학마을에 적응하며 캘리그래피, 드로잉 기초과정 연습 - 주요 책 : 파랑 오리
5~8회기 (21.01.13~21.02.03)	- 책 내용 중 작성하고 싶은 구절을 캘리그래피, 드로잉으로 표현 - 주요 책 : 꽃을 보듯 너를 본다
9~12회기 (21.02.10~21.03.03)	- 온라인 전시회 준비 및 활동 마무리 - 주요 책 : 언제 들어도 좋은 말

⑦ 진행방법

온라인 진행	-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활동 진행 (총 6회) - 네이버 밴드(온라인 플랫폼)를 활용한 작품 나눔 활동 (상시)
오프라인 진행	- 복지관에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안전하게 대면 진행 (총 6회)

⑧ 담당자 소개

- 담 당 자 : 최예원 사회복지사
- 담당 업무 : 사전옹호사업 및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사업
- 경 력 : 1년 1개월

프로그램 상세 소개

1. 프로그램명 : 온라인 공동체 클릭은 '문학마을'

2. 프로그램 기획 이유

작년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하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 중 책을 읽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데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구나! 책을 가지고 소통하는 온라인 모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더불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우울 아동의 우울감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⁴⁾ 이었다는 논문을 보고 '코로나로 인해 받는 정서적인 고립감, 우울감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독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장, 그리고 실무촉진 TFT가 온라인 독서모임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책으로 '힐링'받고, 책 내용을 타인과 소통하며 '힐링'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관악구장애인 종합복지관은 3년 전 진행했던 6회기의 짧은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외에 문학이나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논의 끝에 한 가지 테마는 독서모임으로 결정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학마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독서'의 유행이 온라인 독서모임을 기획하고 문학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작까지 연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여자들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각자의 개성을 담아 표현한 문학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렛츠 고!

4)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우울 아동의 우울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 김춘경, 김미화 (2005)

3. 프로그램 활동 내용

원페이지 활동 요약에서 볼 수 있듯 문학마을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3월까지 총 12회기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2회기를 사전 준비, 프로그램의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준비 책과 캘리그래피, 드로잉의 만남

문학마을 홍보 시작 전, 책만 활용하여 독서모임을 흥미롭게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읽은 책을 가지고 느낌을 나누어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안에 있는 구절을 작성하는 '캘리그래피', 그리고 책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을 결합시켜 독서와 캘리그래피, 드로잉 활동으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친해지기

문학마을 시작 전, 참여자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사용해보는 프로그램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학마을에서 사용할 실시간 화상채팅 프로그램 'Zoom'과 온라인 소통 창구인 '네이버 밴드'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Zoom 교육 내용 PPT 사진

Zoom 교육은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참여자들이 화상 회의 방에 참가하는 법, 그리고 회의 방에 참가한 후의 비디오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이버 밴드 교육은 앱을 설치하는 법,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법, 사전에 최예원 사회복지사가 개설해놓은 문학마을 밴드에 가입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스마트폰 조작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기초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tips

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채팅 프로그램은 최소 2회 이상의 사전교육이 필요!

- 핸드폰 앱 설치가 가능한 참여자라면, 사전에 앱 설치할 수 있도록 공지하기
-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참여자가 모두 다른 공간에 간 후, 회의 주최자의 화면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지 실습하기

네이버 밴드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모색이 필요!

- 네이버 밴드는 핸드폰으로 편리하고 간단하게 글과 사진을 게시 가능함. 하지만 게시판을 나누어 글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게시물이 모두 혼합되어 있어 찾기 힘들 수 있음.
- 게시물의 주제 별로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혹은 다음 카페 등을 이용하기 예) 속제 게시판, 자유 그림 게시판, 자유 생각 게시판 등

어떤 책이 좋나요?

온라인 플랫폼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종류의 책을 원하는지 의견을 여쭙보았습니다. 강사와 담당자가 사전에 논의했을 때는 참여자들이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동화책으로 결정하고자 했는데 참여자들은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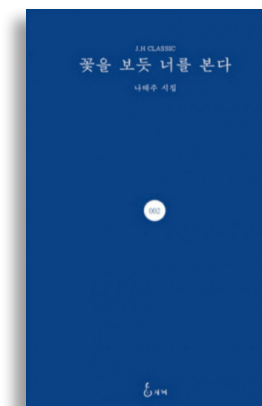
참여자들은 동화책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책은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종류인 '동화책', 두 번째 책은 짧은 글로 되어있어 가독성이 좋은 '시집', 세 번째는 일상적인 글로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산문집'을 선택했습니다.

책 제목	종류	작가	출판사
파랑오리	동화책	릴리아	킨더랜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시집	나태주	지혜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산문집	이석원	그책

이렇게 우리는 '파랑 오리',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라는 세 가지 책을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 파랑 오리 표지



▲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표지



▲ 언제 들어도 좋은 말 표지

처음 (1~4회기) 동화책 '파랑 오리', 그리고 기초 드로잉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90%의 설렘과 10%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 생각에는 참여자도 복지관에 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느끼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마을 참여자 다섯 분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 만나는 날이었던 2020년 12월 18일.

4명 중, 3명의 참여자들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문학마을 OT를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참여자와 강사, 그리고 참여자와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프로그램실에 꾸뻑꾸뻑 들어오던 참여자들의 모습, 조용하고 어색했던 초반의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 '20.12.18. 문학마을 1회기 활동사진

어색하지만 서로가 용기를 내어 간단한 자기소개와 문학마을의 참여 동기를 이야기해 주었고 이어서 강사, 담당자의 짧은 소개도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고, 첫 번째 책이었던 아주 얇은 동화책 '파랑 오리'를 읽고 난 후에는 따뜻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참여자 이○임님은 "이거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너무 슬퍼서 눈물 날 뻔했어요."라고 이야기 하며 동화책을 읽고 난 후의 솔직한 소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참여자 노○숙님은 "선생님 제가 소설이나 산문 같은 책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그림책은 잘 몰라요. 그러니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에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주실 수 있나요? 그림책도 좋네요."라며 동화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마을 강사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아는 것을 단순히 전달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이 활동 과정에서 저도 함께 배워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tips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의 추가 필요!

→ 문학과 관련된 간단한 게임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음.

예) 자기가 좋아하는 책 3x3 빙고, 사전에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OT 참석 후 자신이 가지고 온 책을 설명해 주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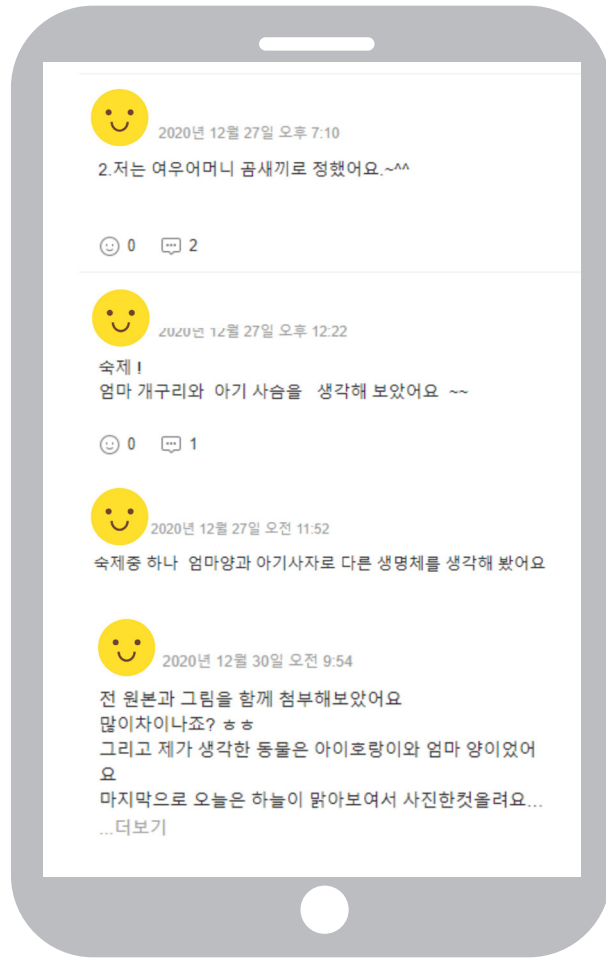
OT가 끝난 후 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모임이 시작되었고, 동화책에 대한 느낀 점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50대 참여자 박○임님은 파랑 오리를 읽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 50이 어리다고 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 드려야 하는 나이인데 전 상처 때문에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악어와 파랑 오리가 서로 안으면서 '내가 지켜줄게요.' 하는 장면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40대 참여자 정○정님은 파랑 오리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따뜻한 생각이 들었는데 또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같은 책을 읽고도 느끼고 생각한 것이 달랐던 참여자들은 서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들으며 친해질 수 있는 지름길로 걸어갔습니다.



▲ 네이버 밴드에 바꾸고 싶은 동물을 작성해 준 참여자들

또한 파랑 오리의 주인공인 오리와 악어 외에 바꾸고 싶은 동물을 생각하는 숙제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열심히 업로드하며 온라인 활동에도 점점 적응해나갔습니다.

파랑오리 책으로 문학마을을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드로잉 연습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컨투어 드로잉'이라는 선을 끊지 않고 다 연결해서 그리는 드로잉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법으로 쉬운 그림부터 시작하여 조금 더 복잡한 그림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 '20. 12. 18. 문학마을 1회기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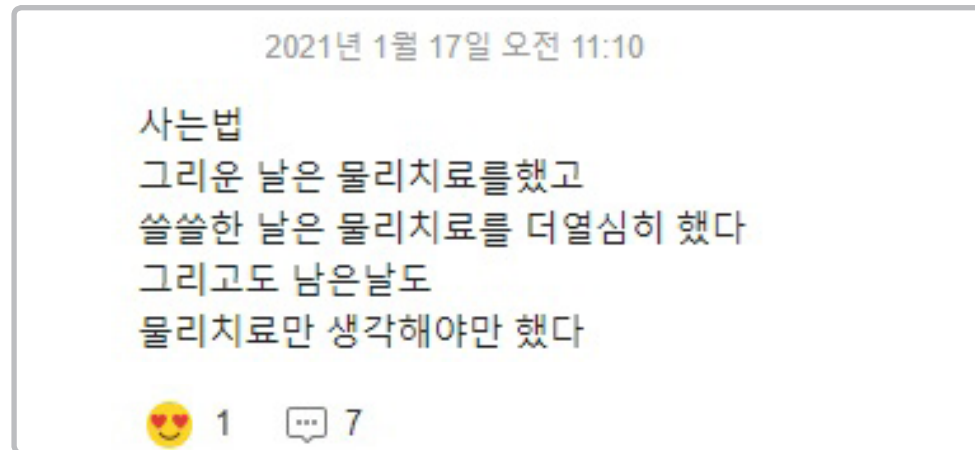
'어렵다'는 생각보다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참여자들!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중간 (5~8회기)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리고 캘리그라피와 드로잉 시작

1월 13일! 60대 이○○님이 문학마을 추가 모집에 신청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 캘리그라피와 물감을 사용하는 수채 드로잉도 시작했습니다. 시집을 읽고 느꼈던 점을 공유하고, 시집에 있는 시에서 단어를 조금 바꾸어 참여자의 시로 변경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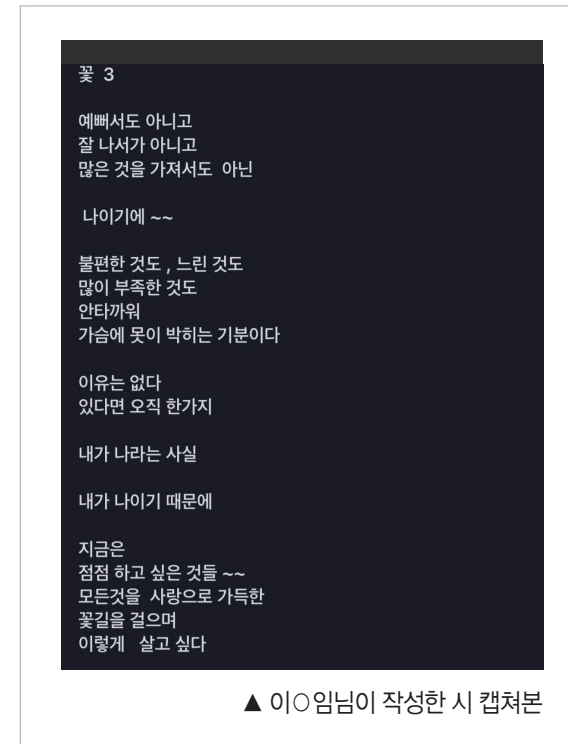
나태주 시인의 시를 참여자들은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참여자들이 직접 바꿔 작성한 시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님이 나태주 시인의 '사는 법'이라는 시를 자신의 상황을 담아 작성한 시입니다.



▲ 정○정님이 작성한 시 캡처본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는 정○정님! 4줄의 짧은 시이지만 정○정님이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정○정님은 캘리그라피, 드로잉 도구를 병원에 가져가 입원 중에도 온라인으로 문학마을에 참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와 문학마을 모두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던 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님이 나태주 시인의 '꽃 3'이라는 시를 자신의 생각을 담아 작성한 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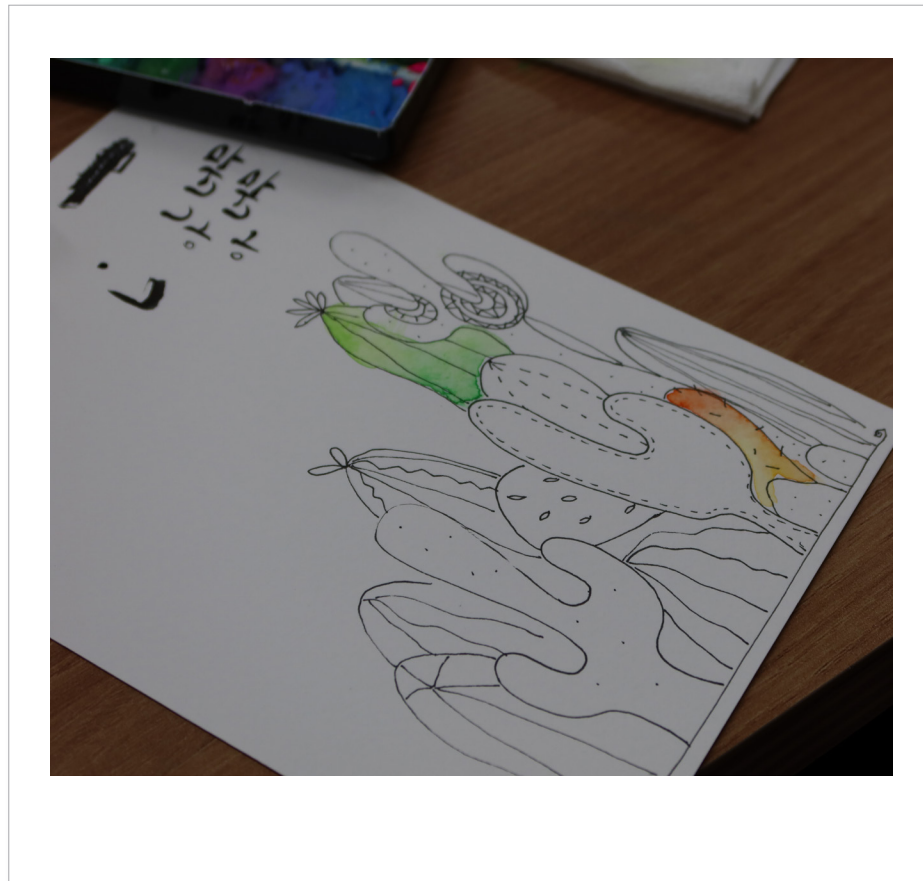


문학마을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던 참여자 이○○님! 시의 일곱 번째 문단을 보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를 보고 박○임님은 '와~언니 불편한 것도, 느린 것도 많이 부족한 것도 안타까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다. 제 가슴도 안타까워지네요. 우리 문학마을에서 캘리그라피 하며 꽃길만 걸으며 살아가요. 잘 읽었습니다.'라며 공감의 댓글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를 바꾸고, 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파랑 오리, 그리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책 안에 있는 삽화를 직접 따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채색까지 해보는 심화된 드로잉과 캘리그라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도, 수채 드로잉도 처음 해보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자 모두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아서 따라가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며 모두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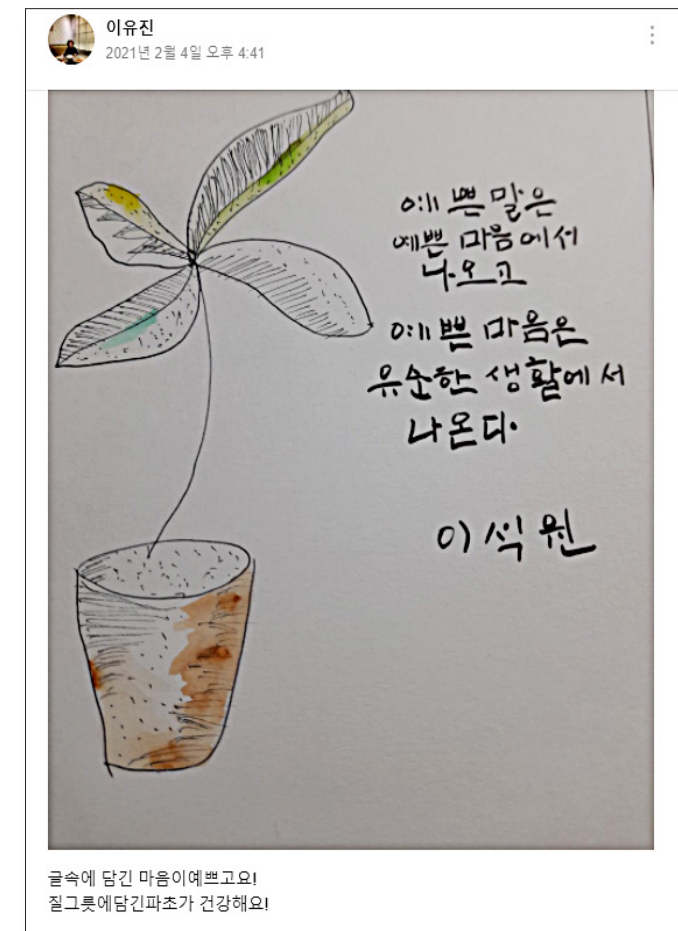
참여자의 그림! 함께 볼까요?



▲ 문학마을 8회기 진행 사진

끝 (9~12회기) 산문집 '언제 들어도 좋은 말', 그리고 온라인 전시회

어머나! 놀랍게도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산문집을 공유할 때는 문학마을이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산문집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문장, 내용 찾기'를 진행하고, 강사가 그 글귀에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산문집의 글귀를 캘리그래피로 작성하고, 그와 어울리는 그림을 수채 드로잉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 이석원 산문집 글귀 캘리그래피, 드로잉 캡처본

자신의 개성을 담아 글귀를 작성하고, 예쁘게 그림을 그리면서 참여자들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매시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니다. 추운 2월이 지나고 다가오는 3월의 봄을 맞이할 때 즈음에 참여자, 강사, 담당자가 다 함께 전시회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전시회는 3월 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참여자 1명 당 10개의 작품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작품 5개는 복지관에 노끈과 집게를 활용하여 전시하고, 복지관에 전시되지 않은 작품은 담당자가 스캔하여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게시하는 작품은 참여자들의 마음 가는 대로, 좋아하거나 잘 완성된 작품을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마친 다음 모임은 아쉽게도 문학마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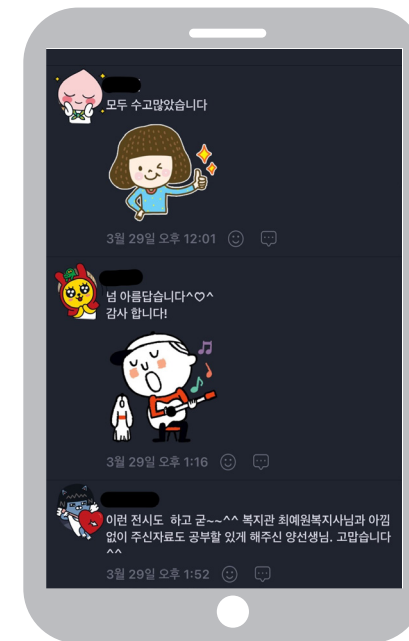
▲ 문학마을 11회기 진행 사진

3월 3일, 수요일. 문학마을의 마지막 날! 참여자, 강사, 담당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며 온라인 전시회에 제출할 작품들도 그리고, 각자의 작품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0분은 참여자 이○진님이 직접 만들어온 카스테라, 노○숙님이 챙겨온 떡을 먹으며 보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도 하고, 문학마을을 참여하면서의 느낌도 나누었습니다. 담당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마지막 날의 나눔 시간'을 참여자들이 직접 생각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문학마을 참여자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가져왔던 빵과 떡은 너무 맛있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 문학마을 12회기 진행 사진

기다리고 기다리던 3월 29일. 두근두근 온라인 전시회, 소규모의 오프라인 전시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전시회가 좋은 점은 참여자들의 지인들도 전시회 링크만 있다면 손쉽게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참여자와 강사에게 온라인 전시회 링크를 전달하였습니다.



◀ 온라인 전시회 게시에 대한 댓글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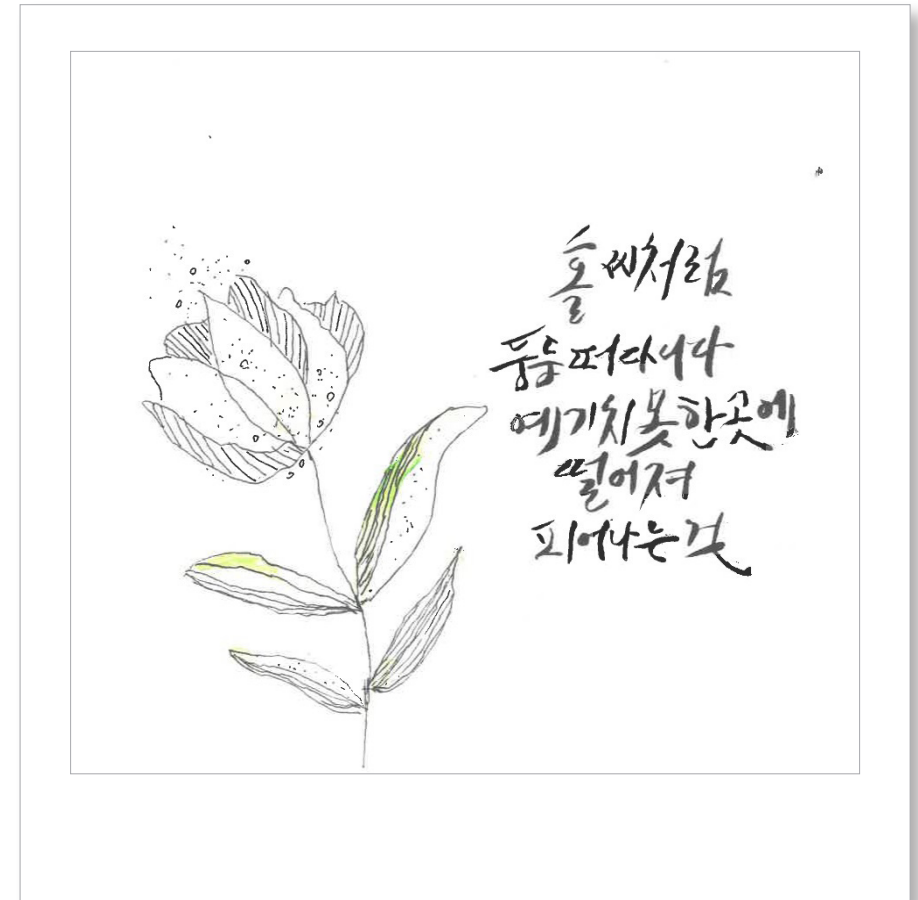
링크를 받은 참여자들은 위의 사진과 같이 댓글도 남겼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문학마을을 참여하고, 작품을 완성한 5명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함께 보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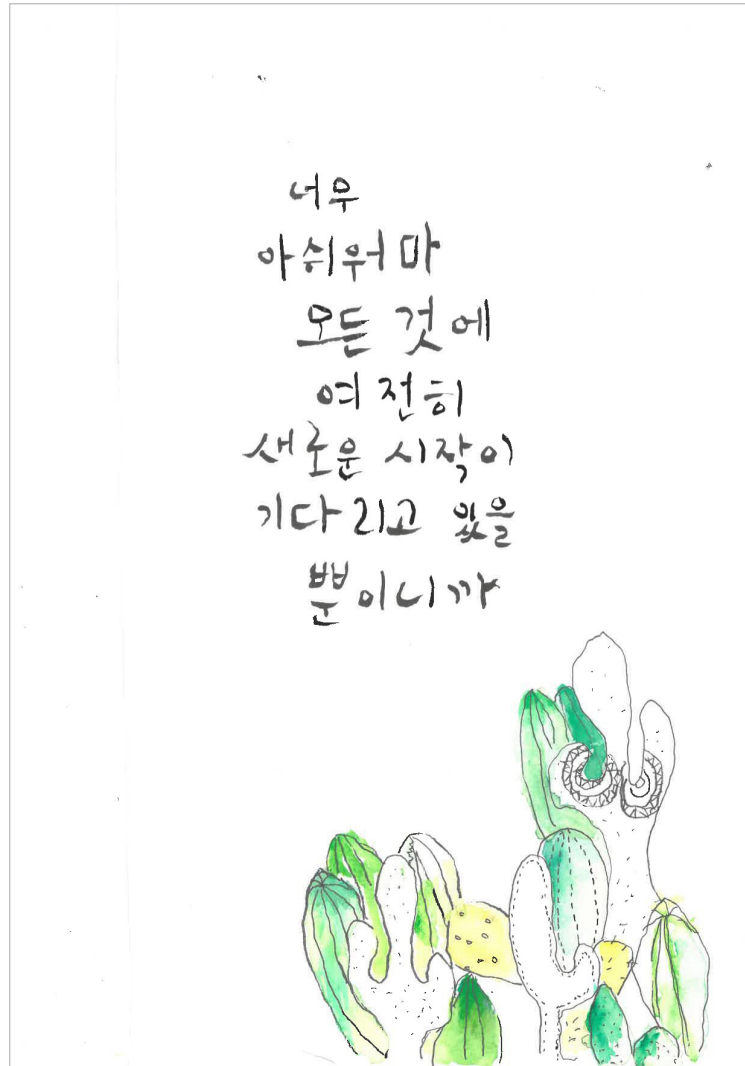
▲ 온라인 전시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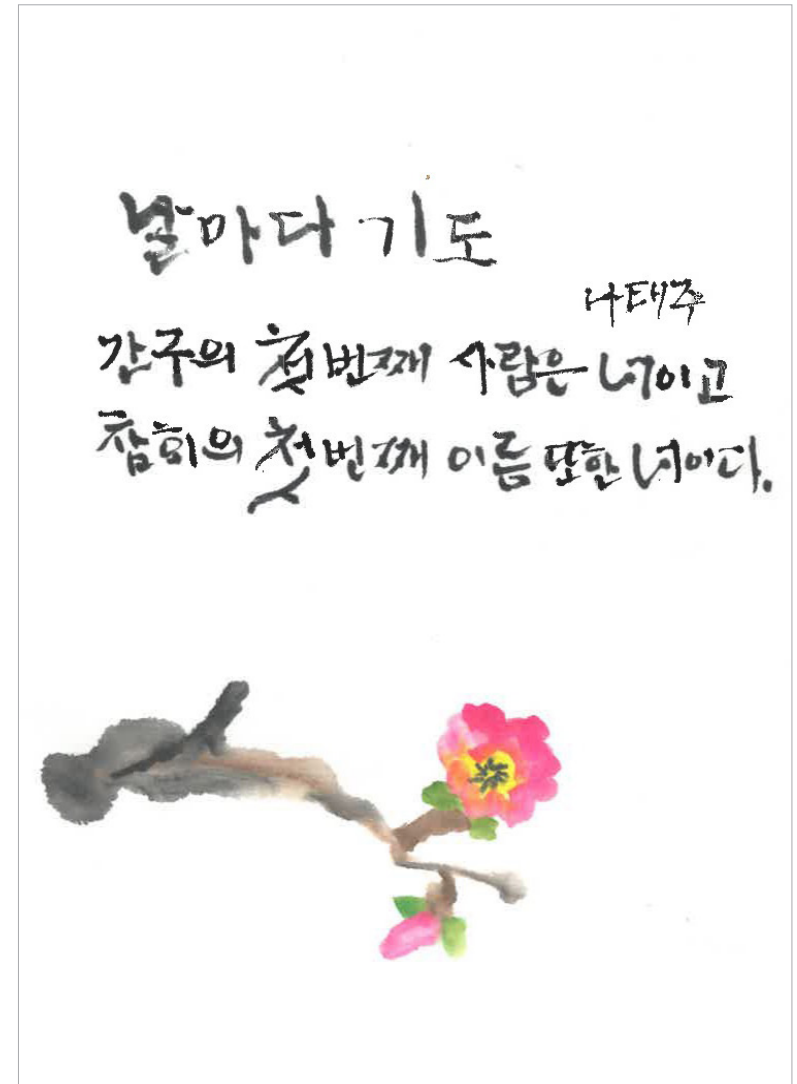
▲ 전시회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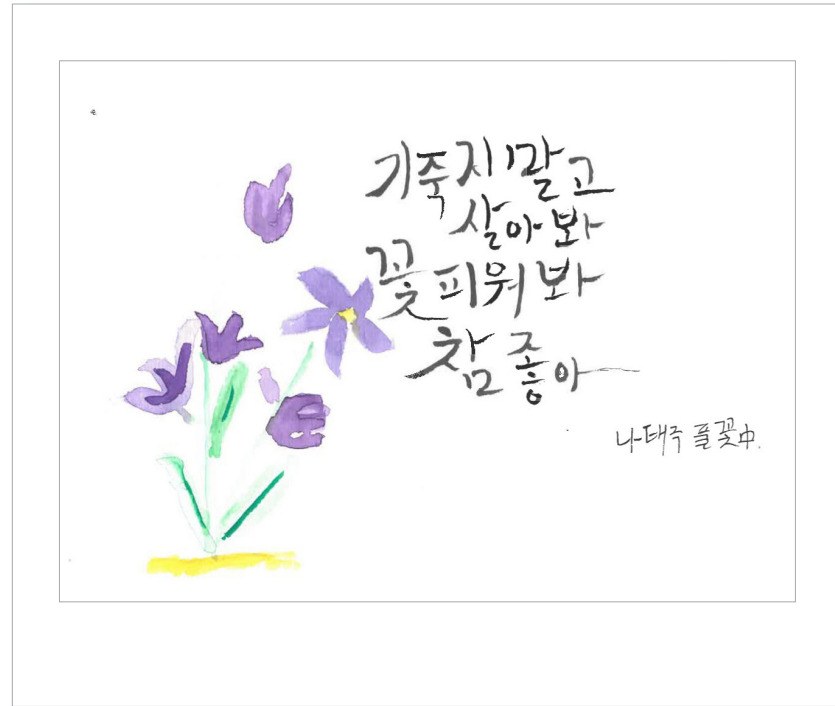
▲ 노O숙님 작품



▲ 박○임님 작품



▲ 이○진님 작품



▲ 이○임님 작품 (사진 60)



▲ 정○정님 작품 (사진 61)

tips

온라인 전시회 포스터 및 안내 이미지는 미리캔버스를 사용함!

- 미리캔버스는 회원가입만 진행하면 무료로 디자인할 수 있는 사이트임. 특히 여러 가지 디자인 예시, 다양한 이미지 및 일러스트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음.
- 디자인을 잘 못하지만 좋은 퀄리티의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면 추천!

문학마을 참여자 FGI를 통한 질적평가 결과

문학마을을 되돌아보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2회기 프로그램을 함께해 준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문학마을에 열심히 임해주신 모든 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질문지는 클릭온 실무촉진 TFT가 사전에 논의하여 정리하였고,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류	문항 내용
시작 멘트	- 인사 및 자기소개, 인터뷰 진행에 대한 감사 표현 - 인터뷰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한 설명 진행
도입 질문	- 코로나로 인해 어떠한 심리적 단절, 고립감을 느끼셨나요? -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셨나요?
주요 질문	- 문학마을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문학마을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나요? - 반면에 아쉽거나 어려웠던 점은 있나요?
마무리 질문	- 추가적으로 강사님이나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또 배우고 싶은 것

1. 문학마을 참여 동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감소와 외로움 심화

문학마을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자제되고, 지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제한되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중지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한 외로움, 심리적인 단절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단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 어렵다 보니... 그전에는 다른 곳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없어지니깐..." (참여자 박○임님)

"저는 코로나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워낙에 복지관에서 많이 해서 마스크나 집에서의 답답함이 많았어요." (참여자 이○임님)

"코로나로 인해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이 중도 하차되고 그랬어요. 내가 만나는 두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원해도 친구들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해도 하지 못했어요."

(참여자 노○숙님)

대면활동의 감소로 온라인 소통, 집에서의 활동 증가

코로나로 인한 대면, 외부 활동이 어려워져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집에서의 활동이 증가되었던 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깐 주로 카톡으로 좋아하는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발전되더라고요." (참여자 이○진님)

"단체 카톡에 10명이 있는데 사진 찍으면 올려요. (생략) 카톡이랑 밴드 가지고 놀았어요. 동아리는 못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참여자 이○임님)

"저는 가정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박○임님)

2. 문학마을에 대한 만족도

모임 내 사람들 간의 격려와 칭찬

문학마을은 칭찬과 격려가 넘쳐흐르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서로가 칭찬을 주고받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참여자 간, 참여자와 강사, 그리고 참여자와 담당자 서로 주고받았던 따뜻한 이야기가 좋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찾아서 밴드에 들어오고 서로 칭찬해 주고 조언해 주고 서로 같은 그림 소재로 그리고..." (참여자 이○진님)

"그림 그리는 것도, 여러 사람이 서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니까 좋았어요..." (참여자 이○임님)

"모두 잘했다고 격려해 주니까 좋아서 자꾸 더 하게 됐어요." (참여자 박○임님)

만족도 표현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 문학마을의 강사,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참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장은 '좋았어요.'였고, 문학마을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하고 싶을 정도로 강사님이나 담당자님이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참여자 이○진님)

"두 분한테 배우는 것을 저는 계속 또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같이." (참여자 정○정님)

"저도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고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참여자 노○숙님)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다시 배우고 싶어요." (참여자 이○임님)

"끝날 때는 (몸이 아파서) 다시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정말 좋았구나 생각했어요." (참여자 박○임님)

3. 문학마을에서 아쉬웠던 점

익숙하지 않았던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의 80% 이상은 온라인으로 소통해야 했던 참여자분들!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실시간 온라인 채팅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보지 못하고 화면상으로 보다 보니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초대돼서 들어가는 거 조금 어려웠어요." (참여자 노○숙님)

"한 손으로 하다 보니 화면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웠어요." (참여자 박○임님)

"선생님이 그린 게 잘 안 보여서 컴퓨터 큰 걸로 해도 잘 안 보였어요." (참여자 이○임님)

4. 문학마을을 통해 변화된 점

집중력의 향상

참여자들은 문학마을에 참여하며 집중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학마을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었고 내가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얻고 문학마을은 저에게 남달랐어요." (참여자 정○정님)

"집중하는 거 그전에는 다섯 시간씩, 세 시간씩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집중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참여자 박○임님)

"누가 말 걸까 봐 겁날 정도로 집중했죠." (참여자 이○임님)

일상생활 속 온라인 플랫폼 활용 증가

문학마을 참여 후부터 일상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족, 지인과의 소통, 종교생활 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느낌? 이제는 핸드폰으로 소통하다 보니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여자 이○진님)

"언니랑 동생이 남산으로 여행 갔다가 밤에 저랑 Zoom으로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옆에서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냐고 해서 엄마랑 같이 영상통화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프로그램도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참여자 이○임님)

"신앙 카페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서 Zoom으로 한다고 해서 저도 하는 방법 안다고 말했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 이런 것도 하냐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박○임님)

자기표현의 증가

문학마을에서 배운 것을 100% 흡수한 참여자들! 직접 작성한 글과 스스로 그린 그림들을 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문학마을에서 배운 걸 가지고 누구에게 편지를 써준 게 있었는데... (중간 생략) 누군가에게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 외에 그림들로 저를 표현하게 됐어요." (참여자 정○정님)

"저도 누구 생일 때 저도 꽃그림을 선물해서 보냈어요. 그런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참여자 노○숙님)

(참여자 노○숙님)

"저도 캘리그라피 글귀를 써서 단체 카톡 방에 올려줬는데 내가 직접 그려서 올렸더니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이○임님)

모임 내 정서적 친밀감 생성

문학마을은 12회 중, 8회를 온라인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담당자인 저는 '직접 만나는 시간이 적는데 참여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의지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해도 친밀감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참여자들이 직접 보여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래 만난 친구처럼...(중략)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다 알고 있어서, 다 이해하고 배려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이○진님)

"모두가 낯설지 않고 친근해요."

(참여자 이○임님)

"공통점이 많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배울 때도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격려해 준 게 고마웠어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참여자 노○숙님)

5. FGI를 통한 담당자 의견

저는 초점집단 인터뷰가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와 담당자가 문학마을의 12회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생각과의 견에 모두가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릭온 사업의 시작 배경이 첫째, 장애인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둘째,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 셋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문학마을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달성된 프로그램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마을을 통한 참여자들의 변화 범주'를 확인해보면 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문학마을 참여자 간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문학마을을 통해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서로 소통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학마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의 관계망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학마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미 있던 활동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사전/사후 척도 변화 비교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높음, 총 120점

구분	노○숙	박○임	이○진	이○임	정○정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42점	35점	33점	79점	79점	95.5	23.42	-.135	.892
사후	39점	44점	34점	40점	80점	67.7	18.56		

참여자 5명 중 2명 감소(평균 21점), 3명 증가(평균 3.6점)

생활 만족도 평가지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높음, 총 35점 만점

구분	노○숙	박○임	이○진	이○임	정○정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21점	28점	32점	32점	18점	26.2	6.41	-.816	.414
사후	20점	31점	32점	33점	18점	26.8	7.19		

참여자 5명 중 2명 증가(평균 2점), 1명 감소(평균 1점), 2명 동일

행복도 평가지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 높음, 총 42점 만점

구분	노○숙	박○임	이○진	이○임	정○정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23점	26점	24점	39점	19점	26.2	7.59	-.542	.588
사후	24점	24점	24점	439점	80점	25.2	8.10		

참여자 5명 중 2명 증가(평균 1.5점), 1명 감소(평균 2점), 2명 동일

온라인 역사탐방 '꽃보다 유적'



▲ 꽃보다 유적 1회기 경복궁 탐방 사진

“
꽃보다 유적은 참여자와 봉사자가 짝꿍이 되어
서울 시내 유적지를 답사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참여자들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역사탐방활동,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꽃보다 유적 온택트 활동

- ① 활동기간 : 2020년 12월 ~ 2021년 4월 (총 5개월)
- ② 참여대상 : 관악구에 거주하며, 역사 및 영상편집에 관심 있는 성인 장애인 3명
재학, 휴학 중인 역사학과 대학대학원생 3명
- ③ 선발방법
- 총 11명 신청자 중, 3명 선발
- 신청자 대상으로 유선 상담 진행 후 클릭온 TFT의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선발
- ④ 진행장소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교실 및 각 탐방 장소
- ⑤ 진행일시 : 매월 넷째 주 수요일, 12:30~18:00
- ⑥ 진행일정

사전 1~2회기 (2020. 12. 24, 28)	참여자 대상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진행
1회기 (2021. 01. 27)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탐방
2회기 (2021. 02. 24)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탐방
3회기 (2021. 04. 07)	창덕궁, 후원 탐방

⑦ 진행방법

온라인 진행	- 참여자 가정에서 영상 편집 활동 진행(총 3회)
오프라인 진행	- 역사탐방 시 4인 미만으로 그룹 나눠 안전하게 진행(총 3회) -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하에 대형 버스로 이동

⑧ 담당자 소개

- 담 당 자 : 황지우 사회복지사
- 담당 업무 :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사업
- 경 력 : 1년 5개월

프로그램 상세 소개

1. 프로그램명 : 온라인 공동체 클릭은 '꽃보다 유적'

2. 프로그램 기획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유래 없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후로 전혀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정서적 불안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건강을 비롯한 사회 제반의 불평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바이러스 확산 대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장애로 인한 낙인과 편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⁵⁾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 밖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여행도 좋겠지만 유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유적지를 눈에 담고, 배움을 주고 받는 모임을 구성해 행복하게 이 시기를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참여자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집 안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랜선'일지라도 유적 탐방 과정을 공유하며 '함께' 한다는 느낌을 나눠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경험을 나누고 싶은 참여자와 봉사자가 모였습니다. '꽃보다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활동에서 장애인과 봉사자가 주체가 되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장소 선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해내었습니다. 좌충우돌 고민과 노력을 담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 전근배(2020), 국가의 거리 :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3. 프로그램 활동 내용

사전준비 참여자 대상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진행(2회기)

담당자인 황지우 사회복지사가 앞선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클릭온 사업을 통해 배웠던 지식을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1회기는 핸드폰을 사용한 촬영/편집 교육, 2회기는 컴퓨터를 사용한 편집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 교육 진행사진



▲ 교육 진행사진

1회기 교육은 복지영상 이성종 대표의 교육을 참고하여 '3-2-1-사 촬영법(3인칭, 2인칭, 1인칭, 사물)로 시점을 바꿔가며 지루하지 않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블로그에 대한 기본 작동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대부분 잘 따라오셨지만 특히 참여자 김O은씨는 짧은 시간 내에 영상에 스토리도 담고 자막과 음악도 추가하여 질 높은 영상을 제작해내었습니다. "저 원래 만드는 것을 잘하고 좋아했어요. 소심해서 영상으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수줍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2회기 교육은 컴퓨터 내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편집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프리미어의 기초와 소스에 맞는 시퀀스 생성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참여자들 모두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외에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의 교육으로 편집을 능숙하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접하고 배우는 것에 의의를 두길 바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tips**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을 추천함!**

- 기업 라이선스인 경우 월 42,900원(VAT 포함), 1년 선불 시 514,800원(월 42,900원(VAT 포함))에 이용 가능함. 가격이 고민이 된다면, 1개월 무료 체험 후 결정해 보는 것이 좋음. 1개월 후 자동 결제되어 원하지 않으면 사전 취소 필요함.
- 어도비 계정은 하나 당 2개의 컴퓨터에서 로그인 가능하지만 동시 접속 불가능함.

두근두근 떨렸던 참여자와 봉사자 OT

사례옹호팀인 저는 재가 장애인들의 가정에 찾아가 상담하고 일대일로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심지어 다수의 참여자와 자원봉사자가 외부 활동을 하는 꽃보다 유적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여자와 봉사자를 함께 만나는 OT 전날 밤, 첫 출근을 앞둔 날처럼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떨림을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거리두기 때문에 띄어둔 책상들처럼 적막한 분위기만 가득했습니다.

자기소개 후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새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저는 덕수궁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흥선대원군이 살았었던 운현궁도 가보고 싶어요.", "봄이 되면 창덕궁이 예쁘다던데, 경치를 함께 보고 싶어요."라며 나왔던 장소들을 칠판에 옮겨 적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경복궁&북촌한옥마을, 서대문형무소 & 독립문, 창덕궁 & 후원이 선정되었고 고른 장소 별로 짝궁이 매칭되었습니다.

OT에서 소개했던 참여자분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전○왕님은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1인 가구 남성입니다. 춘천에서 2년 전에 상경하였지만, 관악구 밖으로 벗어나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꽃보다 유적을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자 전○식님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50대 1인 가구 남성입니다. 역사 영상을 올려 2천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유적 탐방을 혼자만 즐겼었는데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 이번 꽃보다 유적에 지원하였습니다.

처음 (1회기):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1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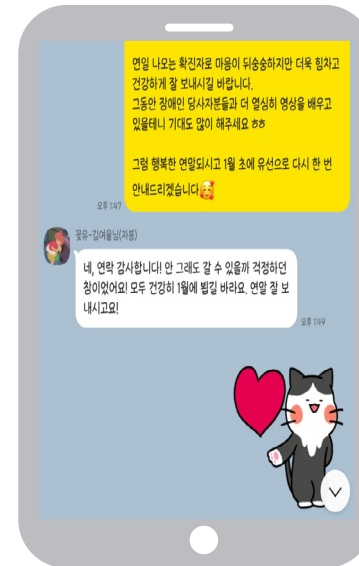


▲ 1회기 단체 사진

시간	내용	장소
12:30~13:00	발제 및 출발준비	4층 프로그램실
13:00~13:30	이동	버스
13:30~15:00	관람	경복궁&북촌한옥마을
15:00~16:00	한복체험	별궁터카페
16:00~17:00	다과시간	북촌한경헌카페
17:00~17:30	이동 및 해산	버스

▲ 1회기 일정 사진

약속된 일정이 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심화되어 한 달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여 새해 인사, 안내 등을 보내며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갈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모두 건강히 1월에 뵙길 바라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궁인 경복궁에서 첫 회기의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봐요."라고 1회기 담당 봉사자 윤○연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 카카오톡 채팅 사진



▲ 카카오톡 채팅 사진

기다렸던 1회기에 3명의 참여자들, 3명의 봉사자들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발 전에 복지관으로 먼저 모여 참여자 김○은님, 봉사자 윤○연님이 준비한 경복궁과 북촌한옥마을에 대한 발표를 듣고 촬영을 위한 스크립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참여자 김○은님은 종이에 빠르게 착지샷, 점프샷 등 33개가 넘게 촬영하고 싶은 내용을 구성해왔습니다. 경복궁 입장 후 참여자 김○은님, 봉사자 윤○연님의 필두로 광화문, 근정전, 강녕전/교태전, 경희루 순서로 탐방하였습니다. 봉사자 윤○연님이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여자 김○은님은 영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자들도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함께 공유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경희루를 보며 "너무 예쁘다. 사진 좀 찍어줄게요."라며 서로 사진도 사이좋게 찍어주었습니다.



▲ 다 함께 한복을 입고 한옥카페 방문한 사진

다음으로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한복점에서 한복을 입고 경치가 좋은 한옥카페에서 오늘의 소감을 나눕니다. 서로 어울리는 색들을 골라주며 자유롭게 골라 입은 한복에 "저는 임금님 한복을 입어볼래요.", "아기 때 이후로 처음 입어봐서 기분이 색달라요."라고 말씀하시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다 함께 한복을 입고 한옥카페 방문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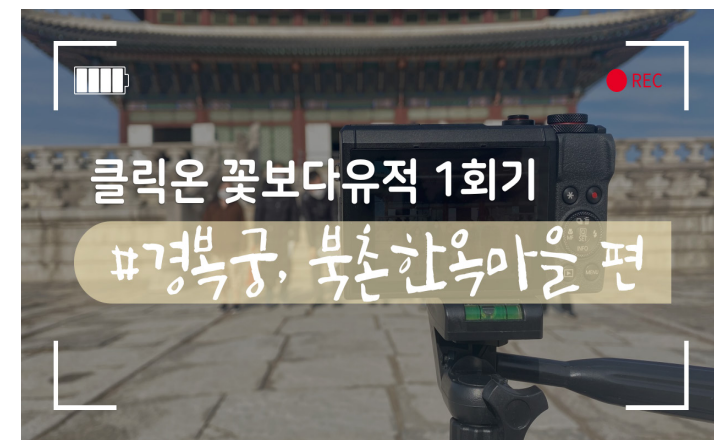
참여자 김○은님은 기획했던 것보다 무려 100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교육 때 배웠던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영상의 크기를 맞추고, 속도를 변경하기도 하여 2주 동안 만고의 노력 끝에 영상을 들고 "저 다 만들었어요~!"라며 환한 얼굴로 복지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어설프지만 열심히 1회기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허물어진 듯합니다. 참여자 김○은님과 황지우 사회복지사가 만든 1회기 답사 영상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여자 김○은님 제작 1회기 영상 대표사진



▲ QR코드



▲ 황지우 사회복지사 제작 1회기 영상 대표사진



▲ QR코드

중간(2회기):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3.1절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었던 2회기



▲ 2회기 대표 사진

시간	내용	장소
12:30~13:00	발제 및 출발준비	4층 프로그램실
13:00~14:00	이동	버스
14:00~15:30	관람	독립문&서대문형무소
15:30~16:30	다과시간	디초콜릿커피독립문점
16:30~17:30	이동 및 해산	버스

▲ 2회기 진행 일정

2회기에도 3명의 참여자들, 3명의 봉사자들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친밀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자 전○왕님, 봉사자 김○울님이 담당한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와야 되는 곳이고 특히 역사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참여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고 현시대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싶었어요."라며 2회기 담당 봉사자 김○울님이 오늘 활동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1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 답사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먼저 독립문으로 이동하여 독립관에서 호국선열 참배를 함께하며 서대문형무소 입장 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서대문형무소에 입장하여 4명씩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전시관, 중앙사, 옥사, 공작사, 사형장 순서로 둘러보며 봉사자 김○울님이 각 장소에서 알아야 할 관람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자 전○왕님은 전시관 내에서 동영상 촬영이 불가하여 사진 위주로 담았습니다.

"사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신념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2회기를 담당한 참여자 전○왕님의 이야기처럼 역사 지식이 많은 있는 사람이나, 역사 지식이 적은 사람이나 이번 답사를 통해 각각의 방식으로 즐기며 함께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전○왕님은 춘천에 살 때 상업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웠지만 막상 영상을 만들려니 예전만큼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지우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옆에 마주 앉아 영상이 나올 순서를 정하고, 효과를 고르고 자막을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노래는 저작권이 없지만 원하는 차분하고 웅장한 느낌으로 찾으려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영상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배워야겠어요."라며 하루 동안 영상을 제작한 전○왕님은 느낀 것이 많다고 하며 다음 주에 개설된 복지관 정보화교실 영상 편집 반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더 기대되는 전○왕님과 황지우 사회복지사의 2회기 영상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ips

서대문형무소 촬영은 사전 허가 후 진행 가능함!

- 관람시간(09:00~18:00)에는 촬영이 불가, 그 외 시간 및 휴관일(월요일) 촬영 가능
- 촬영 허가 범위
 - 촬영 장소 : 옥사, 정문, 건물 외부, 기타 경내
 - 촬영 내용 : 영화, 다크, 드라마, 뮤직비디오, 화보 등



▲ 독립문 앞에서 단체사진



▲ 독립관에서 호국선열 참배하는 모습



▲ 참여자 전O님의 제작 2회기 영상 대표사진



▲ QR코드



▲ 황지우 사회복지사 제작 2회기 영상 대표사진



▲ QR코드

끝 (3회기): 창덕궁, 후원 조선시대 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3회기



▲ 3회기 단체 사진

시간	내용	장소
12:30~13:00	발제 및 출발준비	4층 프로그램실
13:00~14:00	이동	버스
14:00~16:00	관람	창덕궁전각&후원
16:00~16:30	다과시간	회화나무카페
16:30~17:30	이동 및 해산	버스

▲ 3회기 진행 일정

3회기에는 3명의 참여자들, 2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 늦춰지는 바람에 봉사자 김○울님이 일정 상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외부 회의에 참석했다가 확진자를 접촉하게 되었고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활동이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변수가 참 많았던 꽃보다 유적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친해져서 대학원 진학 고민, 좋아하는 가수, 서울 시장 선거 등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참여자 전○식님, 봉사자 김○우님이 담당한 창덕궁과 후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참여자, 봉사자가 같이 발표와 현장 가이드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두 분의 논의 끝에 더 자신 있는 일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봉사자 김○우님은 발표를, 참여자 전○식님은 현장 가이드를 맡았습니다.

"사전 답사를 3번이나 해서 경치가 좋은지, 장애인이 다니기 좋은지 먼저 보고 확인을 했어요. 창덕궁과 후원은 우리 조상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시기엔 꽃도 활짝 피어서 더 아름답죠. 꼭 여러분들과 같이 오고 싶었어요." 참여자 전○식님은 역사탐방 내 내 박식한 역사 지식을 맘껏 펼쳐내셨습니다.

돈화문을 지나 규장각, 악방까지 한 곳 한 곳 특징을 설명하고 일제강점기 때 모든 궁궐 전각들이 헐리고 2000년도에 복원되었다는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도 안내하셨습니다. 유적 탐방은 창덕궁을 넘어 후원 내 부용지, 애련지까지 2시간가량 걷고 또 걸으며 관람했습니다. 걷는 시간 동안 뒤쳐지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중간중간 멈춰서 기다리며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눈에 담았습니다.

참여자 전○식님은 사실 구독자가 2천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 관련 영상부터 색소폰 연주, 중국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을 편집하고 게시합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건 자신이 있어 딱딱 잘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아서 시간을 따로 내어 창덕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틀 정도 돌면서 촬영했습니다. 창덕궁의 모든 모습이 담긴 참여자 전○식님과 황지우 사회복지사의 3회기 영상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tips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무료로 관람 가능함!

- 관람시간(09:00~18:00)에는 촬영이 불가, 그 외 시간 및 휴관일(월요일) 촬영 가능
- 촬영 허가 범위
 - 촬영 장소 : 옥사, 정문, 건물 외부, 기타 경내
 - 촬영 내용 : 영화, 다큐, 드라마, 뮤직비디오, 화보 등

방역 강화로 '온라인 사전예약자'만 입장 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전 예약 필요함!

- 경복궁 내 고궁박물관 : 온라인으로 시간당 100명 예약받고 있으며 1인당 최대 4매 예약 가능함.
- 서대문형무소 : 관람시간 시간당 100명 제한 두고 있으며 온라인 사전예약자만 입장 가능하고 5인 이하 개인 관람만 가능함.
- 창덕궁 후원 : 온라인으로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선착순 예매 받고 있으며 1인당 최대 매표 4매 예약 가능함. (※인기가 많아 예매에 어려움 있었음)



▲ 3회기 활동사진



▲ 3회기 활동사진



▲ 참여자 전O님의 제작 3회기 영상 대표사진



▲ QR코드



▲ 황지우 사회복지사 제작 3회기 영상 대표사진



▲ QR코드

꽃보다 유적 참여자 FGI를 통한 질적평가 결과

꽃보다 유적을 되돌아보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3회기 프로그램을 함께해 준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임해주신 참여자 3분, 봉사자 3분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클릭온 실무축진TFT가 인터뷰 질문지는 논의하여 정리하였고,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1> 인터뷰 질문 내용

분류	문항 내용
시작 멘트	- 인사 및 자기소개, 인터뷰 진행에 대한 감사 표현 - 인터뷰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한 설명 진행
도입 질문	- 코로나로 인해 어떠한 심리적 단절, 고립감을 느끼셨나요? -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셨나요?
주요 질문	- 꽃보다 유적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꽃보다 유적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나요? - 반면에 아쉽거나 어려웠던 점은 있나요? - 꽃보다 유적 전-후로 서로 친해졌다고 느끼나요? 왜일까요? - 경복궁/한옥마을, 서대문형무소/독립문, 창덕궁/후원을 선정한 이유와 가장 좋았던 유적지는 어디였나요?
마무리 질문	- 추가적으로 강사님이나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또 배우고 싶은 것

1. 꽃보다 유적 참여 동기

코로나19로 일상 및 근무환경의 변화와 대인관계 축소를 느낌

꽃보다 유적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자제되고, 일자리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에서의 활동 증가하고 대인관계가 축소되어 심리적인 답답함 느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만남에 참여하기 위해 꽃보다 유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변화가 많이 생겼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랑 매달 일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돼서 답답함이 컸어요. 심리적으로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참여자 전○왕님)

"콘서트 스텝으로 일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가 중단되어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저는 원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복지관 이용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참여자 김○은)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 프로그램이 중단되니깐 혼자 집에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있었죠. 원래 알던 사람들만 만나고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못 만나니깐."
(참여자 전○식님)

2. 꽃보다 유적에서 좋았던 점

'함께'하며 즐거움을 느낌

꽃보다 유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심스럽지만, 굳건하게 모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 번의 일정 변경이 있었지만, 모두 참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애정과 즐거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꽃보다 유적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유적지를 가며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4달 동안 봄날의 예쁜 추억을 만들며 즐거웠어요.(웃음)"

(봉사자 김○우님)

"원래 저는 답사를 혼자 다녔는데 같이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답사 함께 하니깐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진작 같이 할 걸..."

(참여자 전○식님)

"소규모로 진행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유적지도 보면서 행복했어요."

(참여자 김○은님)

"사실 꽃보다 유적 참여 전에는 장애인들이 생활과 지역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을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중략) 같이 가면서 기쁜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봉사자 김○울님)

역사적 지식 습득

참여자, 봉사자 분들 모두 유적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실제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꽃보다 유적을 통해서) 답사를 가는 게 가장 좋았어요. 답사에 대해 잘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참여자 전○왕님)

"서울에 있는 유적지를 처음 가봐서 색달랐어요. 이번에 준비하느라 공부도 많이 했었고 짝꿍으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참여자 김○은님)

3. 꽃보다 유적에서 아쉬웠던 점

어려웠던 영상편집

유적답사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야했던 참여자 분들! 아무래도 캠코더도 처음 다뤄 보고, 편집도 처음 해보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 편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편집 환경이 잘 구축되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편집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진행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체적으로 해내었습니다.

"영상 편집이 능숙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님한테 2번 정도 배웠지만 실제로 하려니 쉽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복지관에서 영상 만드는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서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참여자 전○왕님)

"사진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걸 다 일일이 정리하고 크기를 맞추느라 힘들었어요.. 컴퓨터로 알려주신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잘 안되어서 다시 핸드폰으로 옮겨가지고 편집한 거라 어려웠어요. 계획 했던 거보다 빛나가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참여자 김○은님)

"제 유튜브 구독자가 2,000명인데 워낙에 사진 찍고 편집하는 걸 좋아해서 영상 제작에는 어려움 없었고 답사를 통해 담당했던 창덕궁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죠."

(참여자 전○식님)

3회기 짧은 일정에 대한 아쉬움

4달 동안 3회기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자, 봉사자 분들 참여 횟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셨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점, 2인 1팀 방식의 제한점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3번이다 보니 짧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자 윤○연님)

"같이 식사하는 시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전○식님)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답사 때 잠깐 보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개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쉬워요."(봉사자 김○울님)

"답사가 한 달에 한 번 이었는데 2주에 한 번이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 4인 1팀으로 했으면 소통하고 아이디어 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봉사자 김○우님)

4. 꽃보다 유적을 통해 달라진 점

주체성 향상

꽃보다 유적을 통해 주어진 틀 없이 팀 내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한 영상을 복지관 유튜브에 올려 댓글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참여자들과 봉사자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고 주체적인 자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사학과라는 전공 특성 상 답사는 최소 30명, 최대 100명씩 대규모로 갈 때가 많아 소통이나 의견 반영이 어려웠어요, 꽃보다 유적은 소규모로 진행하여 의견 반영이 잘 되었고 서로 배려하며 일정을 잡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참여자 윤○연님)

"정해진 것을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닌 팀을 나눠서 주체적으로 가고 싶은 것을 정하고 알아보고 공유했던 것이 의미 있었어요."
(봉사자 김○울님)

"제가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 결과물로 나와서 보람 있었어요. 유튜브에 사람들이 댓글 적은거 보면서 행복 했어요."
(참여자 전○왕님)

친밀감 향상

참여자들과 봉사자들이 장애·비장애 상관없이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다보니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쌓였고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함께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복지관과 다른 참여자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보다 유적을 다녀온 후로 찍었던 사진을 간직하고 싶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해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었어요."
(참여자 전○왕님)

"유적지를 좋아해서 혼자 자주 갔었는데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누니 지루함이 덜했어요."
(참여자 전○식님)

"제가 모르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복지관을 온다고 하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런 시선은 두려웠었는데 여기 꽃보다 유적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건 좋았어요."
(참여자 김○은님)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봉사자 세 분 중 한 분은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다른 두 분은 경험은 있었지만 단기 봉사만 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잘 동참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꽃보다 유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역사적 지식을 알고 계시고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임은 서로의 인식이 달라지는 효과까지 가져다줍니다.

"봉사활동 참여가 처음이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렵고 특별한 것 없는 일상적인 모임인데 지금까지 그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봉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봉사자 김○울님)

"이번 경험으로 스스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구나.'를 느꼈어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편견 없이 상대방을 말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짝꿍이었던 전○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감탄했었어요. 사실 처음엔 좀 걱정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웃음)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꽃보다 유적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은 항상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봉사자 김○우님)

5. FGI를 통한 담당자 의견

주체성 향상

참여자, 봉사자, 담당자가 꽃보다 유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각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FGI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장애 유무의 구별 없이 함께 답사하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클릭온 사업의 목적이었던 '장애당사자의 온라인 활동을 통한 행복감 향상 및 고립감 감소'를 이루어 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격려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사전/사후 척도 변화 비교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높음, 총 120점 만점

구분	김O은	전O식	전O왕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57점	43점	56점	52.0	7.81	-1.069	.285
사후	40점	47점	38점	41.66	4.72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참여자 3명 중 2명 감소(평균 17.5점), 1명 증가(평균 4점)

생활 만족도 평가지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높음, 총 35점 만점

구분	김O은	전O식	전O왕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57점	43점	56점	52.0	7.81	-1.069	.285
사후	40점	47점	38점	41.66	4.72		

생활만족감 참여자 3명 중 1명 증가(평균 5점), 2명 감소(평균 1점)

행복도 평가지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 높음, 총 42점 만점

구분	김O은	전O식	전O왕	평균	표준편차	Z	P
사전	16점	21점	28점	21.66	6.02	-1.604	.109
사후	23점	27점	28점	27.33	4.50		

참여자 5명 중 2명 증가(평균 1.5점), 1명 감소(평균 2점), 2명 동일

뉴노멀시대를
경험한
또 다른
실천 이야기

3부

새로운 실천 방법
정리하기

- 담당자 별 에피소드
- 참여자 인터뷰
- 사업 발전가능성
-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동체 '클릭온'을 마치며...



▲ 실무축진 TFT 사진

“
클릭온 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예상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으로 삶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

1. 담당자별 에피소드

꽃보다 유적 - 황지우 사회복지사

코로나19로 복지관이 휴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던 참에 국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뉴노멀 시대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국장님과 온라인 매체에 관심이 많던 최예원 복지사, 조아현 장애인재활상담사와 실무축진TFT를 만들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했지만, 세 명 모두 신입 직원이었고 프로포절 자체를 처음 써본 터라 출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내용을 풀어갈지 고민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운이 따라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함께 부둥켜안으며 기뻐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전 직원 및 실무축진TFT 교육, 장비 구입, 세 개의 테마 활동까지 처음 시도했던 일이었기에 수월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례집에는 담지 못했지만 차에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관악구 21개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하러 다닐 때 좁은 주차장에서 힘들게 주차했던 기억, 인기가 많은 창덕궁 후원 온라인 티켓팅에 실패하여 아침 일찍 8시에 참여자 분과 현장 발권을 했던 기억 등 어설프지만, 참 열심히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실무축진TFT 모두 같이 성장하며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았기에 잘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길을 향해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걸어 보고 싶습니다!

방구석 음악회 - 조아현 장애인재활상담사

추운 겨울 우쿨렐라 2회기 수업이 끝난 뒤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프로그램을 뒷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강사와 참여자들이 강의 후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분은 따뜻하게 입을 외투의 지퍼가 올라가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사는 참여자에게 다가가며 지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말을 건네었습니다. "지퍼가 잘 안 올라가요? 지퍼날 사이가 잘 맞아야 잘 올라가요. 우쿨렐라도 처음에는 손에 잘 안 맞으면 음이 잘 안날 수도 있는데 기초부터 잘 잡으면 쉽게 연주할 수 있어요."

담당자로서 강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덩달아 힘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우쿠렐라 프로그램은 저와 참여자도 그리고 강사님도 처음이었습니다. 기초부터 잘 다지면 저희는 남은 회기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차근차근 우쿠렐라 악기를 배우며 저희는 다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응원하며 12회기 음악 프로그램인 우쿠렐라 악기 교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문학마을 - 최예원 사회복지사

저는 문학마을의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Zoom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찔한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실무촉진 TFT교육에서 배웠던 OBS 프로그램과 Zoom을 연동 방법을 활용하려던 그때!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문학마을의 시작은 다가오고, 카메라와 노트북, Zoom과 OBS는 연결되지 않고... 당황한 저는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강사, 그리고 황지우 사회복지사도 함께 연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했기에 노트북으로 Zoom 회의방을 시작하고, 제 핸드폰으로 그 방에 입장하여 강사 얼굴은 노트북으로, 강사의 손은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문학마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내 한번 더 연결 방법을 확인해볼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개의 화면을 띄울 수 있는 또 다른 해결 방법을 빠르게 생각해낸 것, 그리고 참여자들이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라며 기다리며 응원해 준 것입니다. 이때를 계기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는 사전에 최소 1번 이상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클릭온이 신입 사회복지사였던 저에게 또 하나의 배움의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2. 참여자 인터뷰

핵심 참여자

꽃보다 유적 - 김하은

"황지우 복지사님이 꽃보다 유적에 참여해보면 좋겠다고 말해주셨는데 원래 복지관에 가는 것을 꺼려 했었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큰 결심을 해서 참여했어요.

첫 번째 회기인 경복궁 & 고궁박물관 & 북촌한옥마을에서는 조상님들이 살아온 걸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 이런 곳도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또, 한복 체험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맛있는 걸 먹어서 좋았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 찍을 곳이 많아서 재밌었고 어릴 때만 입었던 한복을 다시 입을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회기 담당자여서 스스로 영상을 찍고 만들었는데 더 배우는 경험이 되었어요.

두 번째 회기인 서대문형무소 & 독립문에서는 사진 찍을 곳이 독립문밖에 없어서 아쉬웠어요. 서대문형무소는 예전에 갔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더 발전되어 있어서 신기했어요. 아픈 역사 이야기라서 재미보다는 진지하게 보게 됐었어요.

세 번째 회기인 창덕궁 & 후원은 사진 찍을 곳이 많았고 궁전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예쁜 곳이 많았고 꽃들도 활짝 피서 기분이 좋았어요. 산책로도 있어서 풍경을 보고 걸을 수도 있었어요.

영상을 찍는 법과 편집하는 것을 배웠고 직접 만들어보았어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원래는 참여하면 마음이 불편할까 봐 고민을 했는데 황지우 복지사님과 참여자분들이 친절하고 괜찮아서 생각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만 가던 곳을 성인 돼서 가니까 다르게 보였고 여러 사람과 같이 돌아다니고 설명도 들으면서 몰랐던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참여하길 잘 했어요!"



주변 참여자

문학마을 강사 - 양옥연



"사실 매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이 처음이라서 저에게도 도전이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처음에 이제 저희 특성상 제가 장애인분들과 함께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수업을 하고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은 그런 수업이었어요.

일단은(참여자 모두)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제가 좀 반성이 될 정도로... 저의 생활 자체가... (웃음) 숙제를 내드리면 바로 그날 (네이버 밴드에 숙제가) 올라오고,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기억에 남네요.

또 조금 더 뭔가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애정이 생겼어요. 사실 다른 수업들은 1년 가까이, 혹은 넘게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과고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 이걸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가슴에 많이 와닿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문학과 함께 한다는 게 또 다른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시너지를 낸 것도 같고, 소통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학마을을 참여하고 난 후에 참여자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았다면 이제는 약간의 신뢰감도 생긴 것 같고, 조금 더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하면서 계속 든든했구요. 문학마을을 통해 3개월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3. 사업의 발전 가능성

방구석 음악회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떠한 프로그램에 '방구석 음악회'를 반영하면 좋을 사업을 꼼꼼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인 여가모임 프로그램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악기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회차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성인발달장애인이여가모임 주 활동은 참여자들 5명들 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매주 정하여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임의 주체성을 정해서 활동을 이어간다면 훨씬 장기적으로 활동이 이어질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우쿨렐라 악기를 연주하는 여가 활동 모임을 구성하여 모임 구성원들이 악기를 배워 여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악기 연주 프로그램은 격주로 진행하고, 다른 주에는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학마을

현재 문학마을은 장애 - 비장애 통합 모임(스몰스파크)으로 연계되어 2명의 지역 주민과 본래의 참여자 4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활동을 중점으로 참여자들이 복지관에서 만나 활동 중입니다. 참여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드로잉보다는 캘리그래피에 중점을 두어 캘리그래피 책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담당자와 강사가 계획한 활동 내용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주체적인 동아리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던 문학마을이 올해 4월부터 '주체적인 동아리'로 발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문학마을이 발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원봉사 담당자이기도 한 저는 문학마을이 일반 동아리에서 더 나아가 '봉사 동아리'로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받았던 참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 활동일 것입니다. 우리 문학마을 참여자들이 1년 동안 그동안 배운 것, 연습한 것을 다른 복지관 이용인에게 나누다면 또 다른 성취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꽃보다 유적

꽃보다 유적은 사업 종료 후에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방문하는 역사탐방활동이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역사 중에서도 특정 테마를 가지고 후속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서울 시내 유적지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닌 '궁궐', '삼국시대 사람들의 삶',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등 참여자들과 함께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직접 유적지를 찾아보고 발제를 준비하는 역사탐방활동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번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참고하여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준비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 만남의 간격을 분기 1회, 또는 격달에 1회로 진행한다면 더 의미 있고 완성도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대두되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어려움 문제는 대체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릭온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가 생활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유선 상담 시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질문에 대부분 '집에서 TV를 보고만 보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기르고 Zoom과 유튜브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인 여가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여자들과의 디지털 관계망을 구축하여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이후 참여자들의 정서적 고립감이 방구석 음악회 참여자 4명 중 4명 감소(평균 27.75점 감소), 문학마을 참여자 5명 중 2명 감소(평균 20.5점 감소), 꽃보다 유적 참여자 3명 중 2명 감소(평균 17.5점 감소)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목표했던 사회적 단절과 정서적 고립감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변수 때문에 담당자도, 참여자도 쉬웠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클릭온을 통해 '나도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은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주체적으로 문학 자조모임을 만들었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수의 참여자들과 밀도 있게 실천했던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온라인 활동이었지만 담당자들을 믿고 즐겁게 참여해 준 방구석 음악회, 문학마을, 꽃보다 유적 참여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뉴노멀시대를
경험한
또다른 실천
이야기

발행일 2021년 6월 25일
발행처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발행인 황성혜
지은이 황보창국, 황지우, 조아현, 최예원
표지 노정숙 (문학마을 참여자, 캘리그라피 재능기부)
지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디자인 EM실천 02-875-9744
ISBN 979-11-975040-0-6
